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76호 【루계 제26150호】 주체107(2018)년 10월 3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고 박정주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상계관인이며 로력영웅, 인민예술가인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연출가 박정주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2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공화국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

여러 나라 신문 특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이 특집하고 글을 게재하였다.

짐바브웨신문 《헤럴드》, 잠비아신문 《룸 데이링》, 남아프리카신문 《라우드 음 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영상사진문헌을 모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등의 제목들로 우리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쿠웨이트신문 《타임스》는 《인민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전재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국호와 마찬가지로 인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것이 수없이 많다. 이것은 사회주의조선을 참다운 인민의 나라로 건설하려는 공화국의 투철한 립장의 반영이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를 비롯한 구호들과 《인민의 심부름군》, 《인민의 충복》과 같은 시대어들과 더불어 온 사회에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열풍이 차넘치고있으며 이것은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 사회주의의 특징으로 되고있다.

방글라데슈신문 《데일리 포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보도하였다.

공화국은 지난 70년간 끊임없는 시련과 난관을 헤쳐왔다.

조선인민은 온갖 도전들을 물리치고 조선을 세상사람들이 찬탄하는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으로 건설하였다.

공화국은 그 어떤 침략세력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무진막강한 군력을 마련하였으며 세계가 공인하는 군사강국으로 존엄떨치고있다.

조선에서는 인민을 위한 사회적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고있다.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만이 남아있던 조선이 70년이라는 력사적기간에 오늘과 같이 번모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들을 모신데 있다.

조선의 선대수령들이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는 만민의 끝없는 흠모를 받으시는 위인들이시며 김정은각하는 현시대의 가장 숭고한 정치지도자로 세계의 각광을 받고계신다.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은 더 밝은 래일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은 존엄높은 사회주의국가

희세의 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인터네트홈페지에 게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이다》를 로씨야 아르본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9월 7일에 진행되였다.

출판사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김정일령도자의 로작을 출판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로작을 읽으면서 김정일령도자이시야말로 동서고금에 찾아볼수 없는 위대한분이심을 더 잘 알게 되였다.

공화국의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그이의 숭고한 도덕의리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김정일령도자의 업적은 공화국의 무궁번영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오늘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존엄높은 사회주의국가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로씨야 나호드까 포르마뜨출판사에서 최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9월 7일에 진행되였다.

출판사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김정일령도자의 로작을 출판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로작을 읽으면서 김정일령도자이시야말로 동서고금에 찾아볼수 없는 위대한분이심을 더 잘 알게 되였다.

공화국의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그이의 숭고한 도덕의리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김정일령도자의 업적은 공화국의 무궁번영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오늘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존엄높은 사회주의국가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에꽈도르 에꽈리브로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진보적민주주의에 대하여》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온 사회에 공산주의도덕기풍을 세울데 대하여》를 브라질선군정치연구쎈터가 최근 인터네트홈페지에 게재하였다.

홈페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사진문헌을 모시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자》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에꽈도르 에꽈리브로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진보적민주주의에 대하여》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온 사회에 공산주의도덕기풍을 세울데 대하여》를 브라질선군정치연구쎈터가 최근 인터네트홈페지에 게재하였다.

홈페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사진문헌을 모시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의 전문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벌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가 8월 27일 인터네트홈페지에 게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5개년전략고지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자

주체화된 생산공정들이 위력떨친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철강재생산성과 확대

북방의 철의 기지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주체화의 숨결이 세차게 맥박치고있다.

지난 9월 25일 산소열법용광로와 대형산소분리기, 류동층가스발생로 준공식을 성대히 진행한 김철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철강재생산에서 련일 성과를 확대하고있다.

산소열법용광로에서 첫 쇠물을 뽑은 때로부터 우리의 연료에 의거하는 자립적인 생산체계를 련이어 확립한 김철로동계급은 특스에 의한 선철 및 강철생산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고 주체화된 생산공정들에서 우리의 원료, 우리의 연료로 주체철을 생산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금속공업부문에서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철생산원가를 낮추고 주체화된 생산공정들의 운영을 정상화하여 철강재를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어머니조국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이한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주체화된 생산공정들에 만부하를 걸어 인민경제 중요전투장마다에 더 많은 철강재를 보내주기 위한 총공격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당지도소조와 당조직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자력갱생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비약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생산자대중을 련속공격, 계속혁신에로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일군들은 생산공정간 맞물림을 신축성있게 하는 한편 주체화된 생산공정들이 온을 내도록 하기 위하여 작전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주체화된 생산공정마다에서 혁신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조업이래 수만의 주체쇠물을 생산한 산소열법용광로직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어렵고 부족한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철강재생산의 선행공정을 맡아나섰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차지당 쇠물생산량을 계속 높여나가고있다. 한몸이 그대로 원료가 되고 연료가 되여서라도 주체철생산의 봉을 굳건히 지켜갈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심장마다에 만장약한 이곳 용해공들은 로운영을 보다 과학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계속 탐구도입하면서 질좋은 쇠물을 뽑아내고있다.

산소분리기분공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산소보장에 주체철생산성과가 달려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같은 조건에서 더 많은 산소를 생산하며 그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그들은 과학기술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산소생산량을 늘일수 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만아들이고 필요되는 부속품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하여 산소생산정상화에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가스발생로직장에서는 류동층가스발생로의 운영을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진행하여 쇠물남비와 강편가열에 필요한 가스를 충분히 생산보장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과태기와 콘베아를 비롯한 설비들의 정상관리를 잘하는 한편 원료들의 배합비를 합리적으로 정하여 가스의 질과 실수률을 높여나가고있다.

강철2직장과 열간압연직장에서도 위훈창조의 불길이 타올랐다.

강철2직장의 용해공들은 변화된 작업조건에 맞게 합리적인 로조작방법들을 찾아내고 새로운 탈류방법을 비롯한 앞선 기술들을 적극 받아들여 쇠물의 실수률과 강편생산량을 높여나갔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압연강판생산에 필요한 많은 량의 강편을 생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열간압연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고온공기연소식가열로보수를 단 열흘동안에 해제끼고 석탄가스에 의한 압연강판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철강재생산의 주체화실현에서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윤금찬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석탄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각지 탄광들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각지 탄광들에서 9월 석탄생산계획을 완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조양탄광, 자강도공급탄광, 개천탄광과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룡림탄광, 강동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덕산탄광을 비롯한 각지 탄전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생산적앙양을 일으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많은 석탄을 보내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하겠습니다.》

석탄공업부문의 전체 일군들과 탄부들은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한 기세드높이 증산돌격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조양탄광의 일군들은 굴진을 확고히 앞세움에 대한 당의 방침을 절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조직정치사업을 치밀하게 진행해나갔다. 석탄매장량이 많은 월봉갱과 3갱에서의 새 탄맥마련에 큰 힘을 넣으면서 굴진장기를 비롯한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탄부들의 투쟁기세를 더욱 고조시키였다.

이곳 기술자들과 탄부들은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굴진을 다그칠수 있는 앞선 작업방법을 받아들이고 자체의 힘으로 뽕크리트침목을 생산보장하여 운반능력을 높이는 등 즐기찬 기술혁신전투를 벌려 석탄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결과 굴진과 석탄생산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자력갱생기지를 튼튼히 꾸려놓고 석탄증산전투를 벌린 자강도공급탄광과 개천탄광의 탄부들도 월계획수행의 승전포성을 높이 울리였다.

자강도공급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운반조건이 불리한데 맞게 기술혁신으로 전차와 탄차의 가동률을 훨씬 높이고 정머리들을 생산보장하는 등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로 원만히 풀어나가면서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을 일으키였다.

개천탄광에서도 생산지휘의 정보화를 한계단 끌어올리고 탄차를 비롯한 많은 기계설비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보장하면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매일 많은 석탄을 캐내였다.

룡림탄광의 탄부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석탄생산에서 앞장설 불같은 열의를 안고 막장마다에서 자력갱생정신, 불굴의 공격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련속천공, 련속발파를 드세게 틀어대였다.

덕산탄광을 비롯한 여러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도 석탄증산으로 경제전실대진군을 힘있게 추동할 일념밑에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돌격전을 벌려 9월 석탄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각지 탄전들에서 증산돌격전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속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큰 성과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되고있다.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룡산탄광 5갱 굴진1소대의 탄부들은 지난 9월 6일까지 5개년전략목표수행기간에 달성해야 할 굴진목표를 앞당겨 점령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이곳 탄부들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5개년전략수행의 첫해인 2016년에 굴진계획을 250%로 넘쳐 수행한 기세드높이 지난해에는 년말까지 근 3년분에 달하는 굴진과제를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을 만능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발파효률을 1.5배이상 높일수 있는 앞선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련속공격전을 벌린 결과 공화국창건 일흔돐전으로 5개년전략목표수행기간의 굴진목표를 앞당겨 점령하는 자랑찬 위훈을 창조하였다.

룡강은 9월에 각지 탄전들에서 이룩된 커다란 로력적성과들은 경제전실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전체 인민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명춘길

삭도건설공사 결속, 시운전 진행

단천지구광업총국 광천광산에서

단천지구광업총국 광천광산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인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할 또 하나의 창조물을 일떠세웠다.

높고 험한 산발을 주름잡으며 광석운반작업의 삭도화를 실현함으로써 광산에서는 풍부하게 매장되여있는 흑연광물을 다량채굴, 다량처리할수 있는 믿음직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과 경공업, 농업을 비롯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생산적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하루빨리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강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채취공업부문에서 설비를 대형화, 고속도화하는것과 함께 운반에서 삭도화, 콘베아화, 관화를 널리 받아들일데 대해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산악지대에 위치한 광산의 조건에 맞게 삭도운반으로 광석수송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을 펼친 단천지구광업총국과 광산일군들은 부족한것이 많은 속에서도 대담하게 일판을 전개하였다.

광산일군들은 단계별목표를 뚜렷하게 세우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풀어나가면서 공사작전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해나갔다.

높고 험한 6개의 산봉우리를 깎고 철탑들을 세우며 깊은 계곡에 원동소, 하차장, 상차장 등 여러 건축물을 건설해야 하는 어렵고 방대한 공사에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광산당조직에서는 공사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대중속에 깊이 인식시키면서 그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벌려나갔다.

광산의 모든 종업원들은 부족한것이 많은 속에서도 삭도건설공사를 하루빨리 앞당겨 끝낼 열의를 안고 철탑소재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떨쳐나섰다.

공무중대, 4.15기술혁신돌격대의 전투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설비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철탑부분품가공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짧은 기간에 많은 량의 철탑부분품들을 원만히 생산한 광산에서는 그 운반전투에 력량을 집중하였다.

여러개의 산발들을 넘고넘으며 수십m의 철탑부분품과 건설용자재들을 운반하는 전투에 광산종업원들이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운수기재를 리용할수 없을 때에는 서슴없이 등짐으로 자재들을 운반하였으며 여기에 광산의 녀맹원들까지 발벗고나서 삭도건설공사가 벌어지는 산판은 혁명열, 투쟁열로 무글무글 끓어번졌다.

철탑조립전투에 진입한 흑연갱, 선광직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대담하고 기발한 착상으로 많은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능률적인 작업방법을 탐구하며 조립속도를 높여나갔다. 원동소, 상차장, 하차장을 비롯한 부대건물건설에 참가한 로동자들도 길은 산물짜기에서 방대한 굴착과 풍크리트치기공사를 불이 번쩍나게 해제꼈으며 수천m구간의 쇠바줄놓이기를 짧은 기간에 끝내였다.

광산에서 삭도건설공사가 활발히 진행될 때 단천광산기계공장에서는 삭도바가지제작전투가 맹렬하게 벌어졌다. 이곳 공장의 로동계급은 총국아래 여러 생산단위들에서 수시로 제기되는 설비부속품생산을 밀고나가는 속에서도 삭도바가지제작을 순간도 중단하지 않고 내밀어 삭도바가지를 비롯한 제관품들을 원만히 생산하여 광산에 보내주었다.

수천m²의 기초공사를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고 뒤이어 수십개의 철탑과 구조물, 원동소건설, 쇠바줄놓이기를 성과적으로 끝낸 광산에서는 지금 삭도바가지의 시험운행을 진행하고있다.

옥돌생산기지로 유명한 광천광산에서 앞으로 경제적수요가 높은 흑연광물생산도 활기있게 내밀어 나라의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그날은 멀지 않았다.

본사기자 리철옥

기술혁신의 앞장에서 힘차게 전진

강원도안의 3대혁명소조원들

강원도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올해에만도 해당 단위들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과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많은 기술혁신과제들을 훌륭히 수행하여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투쟁전, 기술전을 과감하게 벌려 기술혁신과 창의고안의 명수, 최첨단돌파전의 선구자가 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소조원들이 3대혁명전위로서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경제건설을 추동하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더 많이 창안도입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단위들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기술혁신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제끼고있다.

원산구두공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집체적지혜와 힘을 합쳐 초임계탄산가스에 의한 구두창발포공정을 새로 꾸려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원료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신발창의 무게를 극력 줄이였다. 그리하여 구두생산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안변청년2호발전소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전력생산을 늘일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발전기들의 정상운영을 보장할수 있는 여러건의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도입하여 매달 말겨진 전력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도양보장과 문천강철공장을 비롯한 도안의 령도업적단위들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도 줄기차게 내달리고있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5개년전략목표수행의 지름길이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원료와 자재, 설비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해결하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룡담세멘트공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 역시 세멘트생산할수 있는 여러건의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도입하였으며 원산시가구공장의 3대혁명소조원들도 로동자들과 지혜를 합쳐 과수지와 톱밥 등으로 목수지휘틀판을 새롭게 제작하여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과 도안의 건설장들에 보내주고있다.

원산유리병공장의 3대혁명소조원들도 도에 흔한 원료로 정결유리그릇들을 대량생산할수 있는 기술혁신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도안의 자력갱생기지들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도 첨단돌파전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기초화학제품생산공정과 동종이생산공정, 빛반사유리생산공정을 비롯한 도안의 자력갱생기지들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자기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많은 기술혁신과제들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도안의 농업부문과 축산부문, 수산부문과 국토부문, 건설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도 강원도정신의 불길높이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절세위인들의 당건설업적 세기와 세대를 이어 끝없이 빛나리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맑고 푸른 10월의 하늘가에 조선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인 우리의 당기가 세차게 펄럭인다.

그 펄럭임과 더불어 우리 당은 얼마나 크나큰 승리와 영광에 넘친 길을 걸어왔던가.

조선로동당의 창도따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가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더더욱 가슴설레는 이 시각 전체 인민은 우리 당을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뜨거운 격정속에 돌이켜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계승문제는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혁명적당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을 승리적으로 개척하고 전진시켜온 당이라 하더라도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올바로 계승하지 못하면 사상적으로 변질되고 결국에는 혁명의 좌절을 가져오게 된다는것은 력사에 새겨진 뼈아픈 교훈이다.

돌이켜보면 창공높이 휘날리는 당기와 더불어 빛나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에는 당건설위업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로동계급의 당창건사업은 각이한 사회력사적조건과 혁명발전단계에 있는 나라들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띠고 여러가지 방식으로 전개되여왔다.

이 력사적과정에는 성공의 경험도 있었고 실패의 교훈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의 실천적요구, 우리 나라 초기혁명운동의 심각한 교훈을 명철하게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종래의 당창건과는 전혀 다른 독창적인 길을 선택하시고 승리적으로 개척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당창건원칙은 자주성의 원칙이였고 그 리념은 주체형의 혁명적당이였다.

일찌기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조직사상적기초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ㄷ, ㄷ》의 결성, 그것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선언인 동시에 우리 나라에서 새형의 혁명적당창건을 위한 투쟁의 출발점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첫 당조직—건설동지사를 결성하신것은 새형의 혁명적당창건을 위한 새 세대 혁명가들의 투쟁에서 이룩된 그 무엇에도 비할수 없는 귀중한 승리였으며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쌓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사변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를 결성하시여 무장투쟁과 전반적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끄신것을 비롯하여 항일의 나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와 고귀한 전통을 마련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업적은 참으로 위대한것이다.

그 위대한 전통과 당창건을 위한 튼튼한 준비가 있었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이 해방된 후 그처럼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지체없이 주체의 당창건위업을 완수하는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실수 있었다.

우리 당의 창건, 진정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밀려오신 정력적인 투쟁의 고귀한 결실이였다.

조선로동당의 창건과 더불어 우리 인민은 자기의 믿음직한 전위부대, 전투적참모부를 가지고 자기 운명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이때로부터 자주시대 혁명적당건설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당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시는 기회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에 대하여 말할 때 수령님의 존함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이 자신의 절생의 과업이라고 교시하시였다.

대를 이어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 계승성을 보장한것은 조선로동당의 전투적위력과 불패성의 근본요인으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비범한 령도가 있어 우리 당은 수령의 사상체계와 령도체계가 확고히 선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우리 당을 위대한 수령님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을 자신의 절생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오신 우리 장군님의 헌명한 령도를 떠나 존엄높은 우리 당의 승리와 영광에 대하여 어찌 생각할수 있으랴.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집무실에서 한밤을 지새우시고 이른새벽 일군들과 함께 정원으로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하늘가에 휘날리는 당기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기발의 력사는 수령님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무으시고 혁명의 붉은 기발을 드신 때로부터 시작되였습니다. 수령님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무으시고 붉은 기발을 드신 때로부터 우리 당의 뿌리도 튼튼히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력사는 붉은 기발과 함께 걸어온 가장 영광스럽고 빛나는 력사입니다. 우리 당기발에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가 그대로 비껴있습니다. …

우리 당은 오늘뿐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이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여야 한다!

이런 확고부동한 의지를 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당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내세우심으로써 우리 당을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헌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혁명적당건설에서 력사적인 전환을 가져오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 불패의 당으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칠수 있었다.

위인의 정치실력은 고난과 시련속에서 검증된다.

1990년대 우리 혁명앞에는 엄혹한 시련이 닥쳐왔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혁명의 붉은기가 내려워지고 당이 변질되여 사회주의가 좌절되는 심각한 사태가 빚어졌다.

세계의 이목은 조선에로 집중되였다.

조선이 과연 어느 길로 나갈것인가.

주체83(1994)년 10월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오직 수령님께서 걸어오신 혁명의 한길로만 변함없이 걸어가야 하며 수령님의 위업을 수행해나가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확신에 넘쳐 교시하시였다.

철의 의지가 비낀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충직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길에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전도가 달려있다는것을 더욱 심장깊이 새겨안았다.

혁명과 건설을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님의 뜻대로, 수령님식으로.

이런 웅지를 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50돐에 즈음하여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를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곧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우리 당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도, 우리 당이 지닌 불패의 위력과 높은 권위도 김일성동지의 존함과 결부되여있다는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당건설과 당활동,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과 귀중한 경험을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혁명적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대를 이어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할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위업,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밝히시고 이를 위한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로작은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불멸의 기치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령도하여오신 우리 당을 명실공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하시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도록 하시였으며 당건설과 당활동을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으로 해나가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위한 투쟁의 종자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을 생명선으로,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우리 당이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끊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비상히 강화발전되게 한 근본원천이였다.

주체102(2013)년 6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입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우리 당의 지도사상이며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최고강령입니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충직하게 계승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습니다. …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

바로 여기에 이 세상 그 어느 당도 지닌적이 없는 조선로동당의 높은 권위와 불패의 위력, 끝없는 영광과 존엄이 비껴있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발표하신 이 불후의 고전적로작은 우리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길을 밝힌 강령적지침으로 오늘도 우리 인민들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키고있다.

뜻깊은 당창건기념일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는 지금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우리 당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그이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우리 당은 앞으로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서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떨치며 백승의 력사만을 아로새겨갈것이다.

본사기자 전광남

혁명적당건설의 나날에

자주성을 견지하라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어느 날이였다.

외국방문의 길에서 어느 한 나라의 대통령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제기하는 질문들에 허심하고도 명백한 대답을 주시였다.

그가 제일 부러워하며 질문을 많이 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조선로동당의 경험이였으며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자주성에 대한 문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통령에게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세계에는 높고낮은 당이 없으며 아버지당과 아들당도 있을수 없다고 결연히 말씀하시였다.

지력있게 울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이 말씀은 대통령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연방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수령님의 말씀을 거듭 되뇌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몹시 흥분되여있는 그에게 자주성은 오늘의 시대적요구이라고 절절하게 교시하시였다.

대통령은 위대한 수령님께 조선로동당이 어떻게 오늘까지 혁명과 건설을 독창적으로 해오게 되였는가를 잘 알게 되였다고 하면서 자기 당은 앞으로 자주성을 튼튼히 지켜나가겠다고, 그래서 절대로 아들당이 되지 않겠다고 확언하였다.

당건설과 당활동의 근본원칙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 시기에 있은 일이다.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그이께서는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자면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주선을 똑바로 세워야 한다고, 우리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주선은 전당에 수령님의 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전당에 수령님의 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우리 당건설과 당활동의 근본원칙이며 이 사업은 우리 당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전기간에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므로 모든 당사업과 당활동은 수령님의 사상체계를 세우고 수령님을 더 잘 받들어모시며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하는데 집중되여야 한다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는 일군들의 가슴은 세찬 격정으로 높뛰였다.

대회장을 진감한 환호성

주체101(2012)년 2월 어느날이였다.

한 일군을 부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대표자회준비사업정형에 대하여 료해하시였다.

일군의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자고 한다고 하시였다.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 당대표자회를 혁명의 위대한 수령들을 우리 당과 혁명의 전두에 영원히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기 위한 중대한 문제를 토의하는 력사적인 회의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대표자회 첫째 의정과 당규약에 새롭게 반영할 내용들에 대해서도 세세히 밝혀주시였다.

그후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며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갈데 대한 결정서가 전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환호속에 채택되였다.

회의장을 뒤흔든 우렁찬 박수소리와 만세의 환호성은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는 전체 인민들의 최대의 경의였으며 세계 그 어느 나라 당의 력사에도 있어본적 없는 수령영생의 성스러운 력사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심의 분출이였다.

본사기자 김일권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당창건사적관에서— 본사기자 찍음

력사의 진군길에 울린 신념의 선언

10월의 명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지금 온 나라 인민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시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모습이 어려와 한없는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야 한다.》

주체101(2012)년 4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앞두고 진행될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와 관련하여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참으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대표자회를 통하여 수령님의 후손들이며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가 어떤 신념과 의지, 도덕의리심을 가지고 자기 수령을 받들어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떻게 떨쳐나섰는가를 뚜렷이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격정에 젖어있는 일군들을 돌려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대표자회에서 조선로동당이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이라는것을 내외에 선포할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창건자이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니다. 우리 당이 지닌 높은 권위와 불패의 위력,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업적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존함과 결부되여있으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존함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입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입니다.

당대표자회를 앞둔 뜻깊은 자리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일군들의 가슴마다에 억년 드놀지 않는 정신적기둥, 신념의 기둥을 세워주었다.

우리의 모든 승리와 영광, 존엄의 상징인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폭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의 모습이 숭엄히 어려와 일군들의 마음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장내에 격정의 파도가 급이치는 가운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이라고 다시금 힘있게 선언하시였다.

그것은 당건설과 당활동을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님식, 위대한 장군님식으로 해나가며 수령님들의 사상과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관철해나가려는 절세위인의 드팀없는 신념의 분출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실 절대불변의 신념을 선언하신 못잊을 그날로부터 6년세월이 흘렀다.

력사의 흐름에서 6년은 순간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나날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의 존엄과 위력을 온 세계에 떨친것으로 하여 우리 혁명사에 금문자로 빛나고있다.

세계는 그토록 어려운 시련속에서도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확신성있게 이끌며 인민의 아름다운 꿈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같으신 절출한 령도자를 알지 못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빛내이며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줄기차게 이어가려는것이 우리 인민모두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본사기자 한영민

교육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여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그 어떤 나라와 민족도 교육사업을 떠나서는 사회적진보와 번영을 이룩할수 없으며 민족의 존엄과 미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조국건설의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체의 민족간부를 키워내는 교육사업을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로 내세우시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육사업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미래의 주인공들인 후대들을 잘 키울수 없고 민족간부문제를 해결할수 없으며 따라서 부강한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건설도 우리 민족의 번영도 기대할수 없습니다.》

주체39(1950)년 2월 어느날이였다.

전날 밤늦도록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할 2개년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에 관한 보고서초안을 검토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아침 한 일군을 부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집무실에 들어서는 일군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밤을 밝히시며 보아주신 문건들이 책상우에 무뚝히 쌓여있었던것이다.

격정을 금치 못하는 일군을 반갑게 맞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5차회의에 제출할 2개년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에 관한 보고서초안이 펜잡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그 일군의 수고를 헤아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조금이나마 기쁨을 드리였다는 생각으로 하여 일군의 얼굴은 밝아졌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잠시 동안을 두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용히 이르시였다.

그런데 보고서초안에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이룩된 성과가 옳게 지적된것 같지 않다. 인민교육사업은 공화국정부가 내세우고있는 중요한 인민적시책의 하나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인민교육과 문화건설사업에 큰 힘을 돌려왔으며 이 분야에서 이미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순간 일군은 얼굴을 붉히지 않을수 없었다.

그때 보고서초안의 성과부분에는 인민경제 각 부문의 성과들은 구체적으로 상세히 언급되였지만 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들이 깊이있게 반영되여있지 않았다.

이 하나의 사실만 놓고서도 그를 비롯한 국가경제기관 일군들이 경제사업일면에만 치우치면 나머지 나라의 전도와 관련되는 교육사업에 대한 견해와 관점이 바로서있지 않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일제식민지통치의 후과로 하여 해방전 우리 나라에는 대학이라고는 단 한개도 없었으며 인민학교(당시), 중학교, 전문학교는 얼마 되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령도밑에 나라가 해방된지 몇년밖에 안되는 주체38(1949)년에 인민학교수는 해방전에 비하여 2.8배, 학생수는 1.7배로,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수는 22배, 그 학생수는 23배로 늘어났다. 전문학교수는 12배, 그 학생수는 10배로 늘어났으며 특히 해방전 한개의 대학도 없었던 이 땅우에 15개의 대학이 창설되고 대학생수는 1만 8 000여명이나 되였으며 이밖에도 직장기술학교들과 재직간부양성기관들을 통하여 수만명의 간부들을 키워내고있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 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후대교육사업을 미룰수 없는 선차적인 문제로 내세우시고 헌명하게 이끌어주시는 과정에 이룩된 자랑찬 성과였으며 자체의 힘과 기술로 부강한 나라를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의지의 발현이기도 하였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보고서초안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자신을 나라의 중요직책을 담당한 일군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깊은 자책에 잠긴 일군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2개년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 로동자, 기술자들의 기술기능수준도 훨씬 높아졌으며 간부들의 경제관리운영수준도 높아졌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이룩한 이러한 성과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것이다. 그것은 나라의 발전전망이 준비된 민족간부를 어떻게 키워내는가 하는데 달려있고 또 우리에게 민족간부들이 매우 적기때문이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2개년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을 최고인민회의에서 세상에 공개하는것만큼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시책실행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두드러지게 보충하라고 구체적인 과업까지 주시였다.

일군의 가슴은 후덥게 달아올랐다.

교육사업을 얼마나 중시하시였으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일에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밤을 새워가시며 문건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고 또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들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랴.

일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보고서를 완성하였다.

그후 2개년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에 대한 보고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자 우리 인민은 물론 세계가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시책에 대하여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본사기자 채히성

박봉주동지

함경남도 여러 단위 현지료해

【평양 10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가 함경남도의 여러 단위를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에 총매진할데 대한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2.8비날론련합기업소와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룡성기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도안의 여러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증산돌격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박봉주동지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가성소다생산공정을 돌아보면서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자강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기초화학제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와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박봉주동지는 당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기업소들이 당정책옹위전에서 기치를 들고 나가며 련관부문들에서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어 박봉주동지는 흥남제약공장, 함흥영예군인교정기구공장 등을 현지료해하였으며 북청군 룡전과수농장과 북청사과연구소를 돌아보았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생산정상화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하며 일군들이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하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였다.

박봉주동지 룡성기계련합기업소 현지료해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추동하자

대중의 정신력발동에 증산의 열쇠가 있다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기적은 결코 저절로 일어나는것이 아니며 기적을 낳는 어머니는 대중의 앙양된 정신력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켜야 합니다.》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증산의 열쇠를 대중의 정신력발동에서 찾고 정치사업방법들을 적극 탐구하고 활용하여 그 실효가 최대로 나타나게 하고있는 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에 주목되는 점들이 있다.

분위기를 고조시킨 직관선동

당위원회는 련합기업소안의 대부분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막장에서 일하는 조건에 맞게 직관선동을 실효성있게 잘 조직하여 그들의 창조적열의를 불러일으키는데서 생활력이 발휘되게 하였다.

우선 직관분위기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통이 크게 조직하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로 부른 당의 호소가 나오자마자 련합기업소안의 탄광들을 비롯한 모든 단위들에 그와 관련한 500여점의 구호와 800여점의 표어들이 게시된 사실을 놓고 말할수 있다.

보기만 해도 정신이 번쩍 드는 구호와 표어들은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증산돌격운동의 선구자가 될 결심을 굳혀주었다.

당위원회가 련합기업소적인 소표전시회를 조직하는데서 잘한것이 있다.

직관원들의 협의회를 열고 전시회를 조직하는 목적과 의의, 그 형식과 방법, 주제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어 그들이 전시회에 준비있게 참가하게 한것이다. 8월 10일부터 20일사이에 진행된 련합기업소적인 소표전시회를 통해 50여명의 일군들과 로력혁신자들이 소개되였다. 중요하게는 단위들사이, 종업원들사이의 경쟁열풍을 고조시켰다.

이목을 집중시킨것은 탄광들에서 경쟁과 호소를 동반하는 속보를 써서 교환하는 형식이였다.

실례로 남덕청년탄광 2갱의 직관원이 탄차마다 만짐신기와 전차점검보수를 잘하여 석탄생산량을 늘이는데 이바지한 전차운전공들을 축하하는 속보를 써서 운반갱에 보내주면 운반갱에서는 2갱에 운반은 자기들이 맡겠으니 념려하지 말라는 회답형식의 속보를 써보내게 하였다. 이것은 서로 고무격려하고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촉발되게 한것, 바로 여기에 온 련합기업소에 증산돌격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있다.

뜨거운 약속

당위원회는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하기 위한 사업을 집단의 명의로 된 편지를 주고받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즉 앞선 단위들이 자기들의 성과와 경험을 진실하면서도 호소성이 있게 편지로 써서 련합기업소안의 모든 단위들에 보내주면 그것을 받은 대상들에서 앞선 단위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경험을 따라배워 자기들도 앞선 단위의 대렬에 들어서겠다는 회답편지를 써서 보내게 하였다.

지난 8월 굴진계획을 남먼저 끝낸 남덕청년탄광 1갱 갱장과 인로청년탄광 2갱 굴진1소대장이 련합기업소일군들의 강연회에 출연하여 경험토론을 하였을 때였다.

당위원회는 그들이 자기들의 경험을 련합기업소안의 채탄중대와 굴진소대들에 편지로 보내주게 하였다.

그 편지를 받은 련합기업소안의 뒤떨어진 채탄중대와 굴진소대들의 반영이 좋았다. 그들은 좋은 경험을 적극 따라배우고 용기백배하여 앞선 단위를 꼭 따라잡겠다는 회답편지를 남덕청년탄광 1갱 갱장과 인로청년탄광 2갱 굴진1소대장에게 보내여왔다.

서로 고무추동하며 새로운 결의를 다지고 앞으로 증산돌격운동의 선봉에 서자고 약속하는 이런 편지들은 련합기업소안의 탄광들에서도 명렬히 오고갔다. 이 방법 역시 앞선 단위는 계속 앞선 단위의 영예를 고수하게 하고 뒤떨어진 단위는 분발하여 앞선 단위를 따라잡도록 적극 추동한 힘있는 정치사업이였다.

집단적경쟁열풍을 일으킨 체육경기

지난 8월 련합기업소안의 당, 행정일군협의회에서 김영훈당위원장이 청년절을 맞으며 체육경기를 조직하자고 하였을 때였다. 일부 일군들은 놀랐다. 그들의 내심은 증산돌격운동이 벌어지고있는 때에 체육경기까지 조직하면 생산이 최질수 있겠는데 시간을 어떻게 보충하겠는가 하는것이였다.

하지만 당책임일군은 결심을 바꾸지 않았다. 집단력을 과시하고 단위들사이의 경쟁열풍을 고조시키기 위해서도 꼭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되여 청년절을 맞으며 련합기업소적인 체육경기를 조직하기로 합의되였다.

8월 28일 체육경기가 벌어지게 된 운동장은 이른아침부터 선수들과 응원자들로 흥성거렸다.

당위원회책임일군들은 심판원이 되기도 하였다. 우승팀들에는 시상도 크게 하였다.

체육경기로 사기를 부쩍 올린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막장과 현장에 들어가 일을 두름, 세몰씩 해제꼈다. 그날에만 해도 련합기업소적으로 전날보다 수백톤의 석탄이 더 생산되였다.

체육경기를 하면 실적이 떨어질수 있다고 생각하던 일부 일군들의 걱정은 공연한것이였다.

체육경기가 있은 후 단위들사이, 종업원들사이에 경쟁열의가 부쩍 높아졌다.

남덕청년탄광의 생산실적이 쑥 높아진것을 놓고 잘 알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체육경기는 집단의 단결력을 과시하고 단위들사이의 경쟁열풍을 고조시킨 위력한 정치사업이였다.

우리 당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을 호소한 때로부터 여러달이 지났다.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는 다른 련합기업소들과 조건이 비슷하지만 석탄공업부문의 앞장에서 힘차게 달리고있다.

이곳 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은 증산의 열쇠는 첫째도 둘째도 대중의 정신력발동에 있다는것을 다시금 강조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손 영 희

일군들모두가 정치사업의 능수들로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강철직장 초급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일군이건 행정경제일군이건 초급일군이건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는것을 기본열쇠로 틀어쥐고 여기에 응당한 힘을 넣어야 합니다.》

지난 6월 중요대상건설에 필요한 강철생산전투를 앞두었을 때의 일이다.

제기되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중에는 기중기운전공들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도 있었다.

현장에는 수십대나 되는 기중기들이 있다. 그 기중기들이 정상가동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강철생산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였다.

이런데로부터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직장의 당, 행정일군들에게 기중기운전공들과의 사업을 잘 짜고들데 대한 분공조직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면 어느날이였다.

정창만초급당위원장은 일군들의 분공수행정형을 알아보았다.

대부분의 일군들이 기중기운전공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그들의 열의를 높여주고있었다.

하지만 편향도 있었다. 일부 일군들이 기중기에 올라가 설비상태나 알아보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있었던것이다.

초급당일군의 생각은 깊어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전당이 선전원, 선동원이 되고 모든 일군들이 다 정치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지 않았는가.)

원인은 명백하였다.

일부 일군들이 기중기운전공들과의 사업을 실무적인 문제로 여기면서 사상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데 근본원인이 있었던것이다.

초급당위원회는 일부 일군들의 그릇된 관점을 바로잡아주기로 하였다.

모든 일군들이 선전원, 선동원이 되자. 모든 사업을 대중의 사상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이것이 바로 초급당위원회가 기중기운전공들의 정신력을 발동하는데서 틀어쥔 기본열쇠였다.

어느 한 일군들의 모임에서 초급당일군은 강조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세인을 놀래운 기적을 창조하였던 천리마대고조시기 일군들처럼 누구나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치사업의 능수가 되자. 그리하여 직장에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자.

모든 당, 행정일군들이 대중속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그들은 기중기수리정비에 필요한 자재와 부속품들을 해결해주는것은 물론 친부모의 심정으로 기중기운전공들의 가정방문도 진행하였다.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해 발이 닳게 뛰여다니였다. 설비나 생산조건보다 사람들을 먼저 보고 따뜻한 사랑과 정을 기울이였으며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그들의 사상을 발동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언제나 군중과 함께 생활하는 작업반장, 당세포위원장을 비롯한 초급일군들도 정치사업방법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도록 잘 이끌어주었다.

전기수리작업반의 초급일군들이 고급기능공인 강동무와의 사업을 짜고들어 그가 우리 당을 받드는 길에 자기의 재능과 열정을 깡그리 바쳐나가도록 한 이야기가 있다.

누구나 정치사업의 능수가 되여 사상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단위사업을 추켜세운 결과 용해, 조피, 련속조피, 설비부문 등 모든 전투현장들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최근 직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중요대상건설장들에 필요한 강철생산에서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이곳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은 모든 당, 행정일군들이 선전원, 선동원이 되여 단위사업을 이끌어나갈 때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수 있다는것을 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채 인 철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끌어주어

서두수2호발전소 3당세포 사업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포비서들은 흠이 있는 자식을 두고 더 마음쓰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결함있는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에 흠집이 갈세라 세심히 보살펴주고 따뜻이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지난 1월 어느날이였다. 당세포위원장 최원민동무의 마음은 무거웠다. 손꼽히는 기능공인 안동무때문이였다.

그의 얼굴이 밝지 못한것을 발견한것은 며칠전이였다.

(무슨 기분나쁜 일이 있은 모양이구나. …) 하고 생각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안동무를 만나 사연을 물었는데 별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말머리를 돌리는것이였다. 새로 온 당세포위원장에게 속을 주려 하지 않는것이 분명하였다.

그에게는 몇해전 전기시험실에서 당세포위원장사업을 시작하던 때의 일이 더듬어졌다.

당시 전기시험실에는 시험공 오동무가 있었는데 머리가 좋고 눈썰미도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실력을 높이기 위해 애쓰지 않는 부족점도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공업시험소에서 오래동안 일한 재능있는 기술자로서 발전소의 보배로 떠받들리웠고 형도 2호발전소에서 초급일군으로 일하고있었다.

당세포위원장이 오동무에게 공부를 꾸준히 하여 아버지나 형처럼 보람있게 살라고 여러번 충고를 주었으나 그는 좀처럼 개심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그는 끝내 2호발전소의 로동현장에서 일하게 되였다.

당세포위원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나 담화를 하면서 그가 개준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주었다. 그 과정에 오동무는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으며 얼마후에는 전기시험실에서 다시 일하게 되였다.

당세포위원장은 오동무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직심스레 공부하도록 떠밀어주었다.

몇해후 대학을 졸업한 그는 실력가로 자라났다. 1호발전기 대보수가 제기되였을 때 그는 전기설비들의 운영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 사람들을 놀래웠다. 높은 실력을 소유하고 어려운 기술적문제들을 척척 풀어나가는 과정에 그는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였다.

지나온 나날을 돌이켜볼수록 최원민동무의 결심은 굳어졌다. 안동무와 허물없이 지내면서 진정을 줄다면 얼마든지 마음의 문을 열수 있으며 그를 옳은 길로 이끌어줄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였다.

다음날부터 당세포위원장은 안동무와 같은 작업조에서 일하였다. 솔뫼근도 그와 함께 하면서 정을 주었다. 며칠후에는 그의 집에 찾아가 가마뚜껑을 열어보고 방안의 정돈도 하면서 가정살림을 료해하였다. 그리고 부식물이며 땔감이 떨어질세라 진정을 기울였다.

마침내 안동무는 가정생활에만 신경을 쓰면서 사람들과 휩쓸리기 싫어하고 자유주의적으로 생활하려 하였던 자기를 뉘우치며 집단에 속을 주기 시작했다.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작은 문제도 당세포위원장에게 터놓았으며 조직의 지도와 방조속에 풀어나갔다. 그럴수록 당세포위원장은 그에게 더 마음을 썼다. 초급당조직에서도 안동무의 가정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성의껏 도와주었다.

안동무의 얼굴은 밝아졌다. 맡은 일도 책임적으로 성실히 하였다. 솜씨있는 기중기운전공인 그는 얼마전 발전기대보수때 어려운 회전자조립을 단번에 성공시켜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다.

당초급일군들이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람과의 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할 때 대중의 정신력은 발동되고 오늘의 경제건설대진군에서 비약적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이곳 당세포사업은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 승 표

군중속에서 찾은 예비

락원기계련합기업소 정밀가공직장 초급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참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 있습니다.》

지난 8월 어느날 직장에는 어려운 전투과제가 나섰다. 중요대상설비들의 부분품에 대한 생산을 공화국창건 일흔돐전으로 끝낼데 대한 과업이였다.

조건은 어려웠다. 그래서인지 직장의 행정일군들은 처음 사업을 어떻게 전개해야 되겠는지 방도를 찾지 못하고있었다.

바로 이런 때 최영진초급당위원장은 초급당위원들의 긴급협의회를 조직하였다. 모임에서는 맡겨진 전투과제를 기한전에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킬데 대한 문제를 놓고 진지한 토의가 진행되였다. 모임이 끝나자 초급당위원들은 일제히 생산현장들에 나갔다.

초급당위원장은 선행공정을 맡고있는 가공1작업반의 전투원들속으로 들어갔다. 로당원들인 기능공들과 무릎을 마주한 그는 호소했다.

락원의 전통을 이어 결사관철의 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로동계급이 그릇한 난관앞에 주저해서야 되겠는가. 마음을 든든히 먹고 떨쳐나서자. …

로당원들의 심장은 세차게 끓었다.

이렇게 초급당일군은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생산자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였다. 이에 고무된 로동자들은 중요대상설비의 부분품을 기한전에 생산할수 있는 합리적인 안들을 한가지씩 내놓으며 자기들에게 어려운 일감을 맡겨달라고 제기하였다.

직장장과 초급당부위원장도 가공2작업반, 수리작업반을 비롯한 전투현장들에 달려나갔다. 그들 역시 대중의 열의를 불러일으키며 걸린 문제를 풀수 있는 방도들을 찾아냈다.

중요대상설비부분품생산을 공화국창건 일흔돐전으로 완수할데 대한 전투목표를 당결정에 쪼아박은 초급당위원회는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당초급일군들과 선동원들을 발동하여 사상전의 포성을 더 높이 울리게 하였다.

모범선동원인 리옥순동무를 비롯한 선동원들은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면서 맡은 일을 두름, 세몰씩 해제꼈다.

대중의 열의가 남김없이 폭발되는 속에 압시험장치를 새로 창안제작하여 설치한것을 비롯하여 여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이 생산에 도입되게 되였다. 하여 직장에서는 높이 세웠던 전투목표를 기한전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이곳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을 통해 증산의 가장 큰 예비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도 생산자대중의 정신력발동에 있다는것을 다시금 새겨보게 된다.

본사기자 장 철 범

불권일으키고있다. — 청진철도공장에서 — 본사기자 제 음

증산돌격운동에로 대중을 힘있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구장군 읍협동농장 초급당위원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투쟁에로 농업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농업근로자들에게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의 본질을 다시금 깊이 인식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또한 전투장들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를 비롯한 구호들과 표어, 전투속보 등을 게시하고 음향증폭기재들을 리용하여 전투적인 노래들이 협동벌마다에 높이 울려퍼지게 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제3작업반을 본보기단위로 내세우고 모든 작업반들이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속에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성과를 거두도록 하고있다.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가는 초급당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가을걷이전투실적은 날로 높아가고있다.

로농통신원 조 건 일

대학생들을 위해 바치는 뜨거운 진정

황북종합대학 공업대학 초급당위원회 일군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후대교육사업은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개성중등학원(당시)을 졸업한 원아들이 황북종합대학 공업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고있다.

부모없이 자란 그들이 마음의 구김살없이 생활하며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이 바친 헌신의 이야기는 감동적이다.

사랑과 정으로 충만된 협의회들

학원을 졸업한 채광선, 전성남, 신복남학생들이 이곳 대학에 입학시험을 치러 오간 기일과 입학통지서를 받고 기쁨속에 정문으로 들어선 날자들을 세면 그리 길지 않다. 하지만 당사자들도 모르는 그들을 위한 협의회가 매일이 열리군 하였다.

허성호초급당위원장은 학원졸업생들이 대학에 입학시험을 치러 온다는것을 알게 된 때부터 그들문제를 사색의 첫자리에 놓았다. 천만가지 중대사가운데서도 애육원, 육아원, 초등학원, 중등학원을 꾸리는 문제를 앞자리에 놓으시였을뿐아니라 원아들이 행복하고 씩씩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실 때 그처럼 기뻐하시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자애로운 모습이 안겨와서였다.

자식을 상급학교에 보내려는것은 부모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그래서 대학입학시험을 칠 때면 어느 부모나 깊은 관심을 돌린다. 바로 그들처럼 학원졸업생들의 부모구실을 하자는것이 초급당일군의 결심이였다.

그리하여 세명의 수험생들이 도착하기 전부터 해당 일군들이 협의회를 열고 그들을 데려오는 문제, 숙식조건을 보장하는 문제, 시험공부를 방조하기 위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토의하였던것이다.

초급당일군은 만사를 제치고 멀리 떨어진 학원에 가서 수험생들을 차에 태워왔고 또 태워다주었다.

시험에서 합격된 그들이 대학에 오게 되였을 때에도 승용차를 가지고가서 데려왔다.

시험기간 대학기숙사의 해빛이 잘 비쳐들고 아늑한 호실을 그들이 리용하도록 따로 정해주고 그 기간의 건강관리와 학습을 방조해주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관심한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개교식을 앞두고는 그들의 학습과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주기 위한 협의를 더욱 진지하게 진행하였다.

그들이 지망대로 건설공학부에서 공부하게 된것만큼 건설공학부 기숙사의 한 호실을 번듯하게 꾸리고 액정텔레비존을 비롯한 생활비품들도 빠짐없이 갖추어주도록 하였다.

제대군인당원으로서 그들과 늘 한호실에서 생활하면서 학습과 생활을 잘 이끌어줄수 있는 초급일군을 붙여주도록 하였다.

보금자리는 학원으로부터 대학으로 옮겨졌어도 사랑과 정으로 충만된 협의회들의 결실로 하여 어머니당의 사랑은 계속 줄기차게 이어지게 되였다.

불씨는 작아도 불길을 낳는다

세 대학생을 위한데서 초급당위원회가 절실하다고 본것은 정이였다.

대학에 기숙사생들이 많아도 그들에게는 방학때면 찾을수 있는 집이 있고 부모가 있었다. 하지만 세 대학생에게는 기숙사가 집이였고 교직원들이 그대로 부모였다.

그들이 부모없는 설음을 모르고 마음껏 배우며 생활하게 하기 위하여 학부장 리준호, 부학부장 오지영, 부문청년동맹비서 김남혁동무를 비롯한 건설공학부 일군들과 학생들은 온갖 진정을 다 바치고있었다. 그중에서도 초급당위원장은 학부부원 안충복동무에게 큰 기대가 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에게서 소중한 불씨를 발견했던것이다.

그는 입학생들을 접수하던 날 출생증을 통하여 본 채광선학생의 생일을 무심히 스치지 않았었다. 충복동무의 진정이 하나의 불꽃이 되여 개교식 전날에 대학에서는 학생에게 생일상을 성의껏 차려줄수 있었던것이다.

불씨는 작아도 불길을 낳는다.

이런 생각을 안고 어느날 건설공학부를 찾은 초급당위원장은 세 대학생에게 기울이는 학부일군들과 학생들의 진정을 평가해주는것과 함께 안충복동무의 소행을 특별히 일러주었다.

학부의 강좌들에서 세 대학생에게 필수품들을 해결해주는 뜨거운 광경을 목격하면서, 전성남학생이 기숙사에서 앓을 때 탕곰을 해가지고 갔다가 그의 부모된 심정에 서보면서 자신에 대한 요구성을 더 높이 제기하게 된 충복동무였다.

당조직을 찾은 그는 부모없는 세 대학생을 자기가 맡아 돌봐줄 속마음을 터놓았다.

쉬운 결심이 아니였다. 그의 집에는 식구가 많았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그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면서 조직과 집단이 있으니 동요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고 신심을 주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그가 세 대학생의 생활의 구석구석을 세심히 돌봐주면서도 당과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심을 키워주고 사회와 집단을 위해 헌신하는 정신을 심어주는데 주되는 힘을 넣도록 하였다.

그때부터 안충복동무는 자신을 그들의 어머니의 위치에 세우고 정성을 쏟아부었다.

평상시에 그들을 잘 보살펴주는것은 물론 방학기간에는 그들을 자기 집에 데려고가 친자식처럼 돌봐주면서 이 기간을 청년대학생으로서의 풍모를 훌륭히 갖추어주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다. 세벽마다 상해산언덕에 높이 모셔져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아 인사를 드리고 주변관리사업을 정성껏 하면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심을 체질화하도록 하였다. 이렇듯 아름다운 소행을 발휘함으로써 지난해 여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릴수 있었다.

초급당위원회가 찾아낸 소중한 불씨는 더 큰 불길을 예고하고있었다.

학원에 울려퍼진 고마움의 노래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세 대학생들을 위한 사업이 전대학의 기풍으로 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여기서 긍정감화를 통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우선 건설공학부 교직원, 학생들속에서 발현되는 소행과 안충복동무의 소행을 소개선전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리였다.

세 대학생이 동상주변관리사업을 잘하여 긍정통보가 왔을 때는 물론 학부부문당위원회로부터 세 대학생을 위해주는 미풍자료가 제기되였을 때에는 교직원, 학생들이 모인 기회에 알려주면서 누구나 자신을 거울처럼 비추어보도록 하였다.

그것은 온 대학에 긍정창조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하였다.

대학안의 당 및 행정일군들이 앞장에 섰다. 응용수학강좌 교원 백문희동무와 외국어강좌 교원 신광복동무들은 지덕체근길을 돌려 건설공학부 기숙사에 찾아가 세 대학생의 학습을 밤낮도록 방조해주었다.

자기 사업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세 대학생들을 도와나서는것은 대학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의 생활로, 기풍으로 되였다.

세 대학생은 대학에 입학하여 몰라보게 성장하였다.

안충복동무가 방학기간에 세 대학생과 함께 학원을 찾았을 때 그들은 조직과 집단으로부터 받아안은 정과 사랑에 대해 학원학생들에게 눈물겹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어버이로 높이 모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다, 세상에 우리들보다 행복한 대학생들은 없다고 격조높이 토로하였다. 그리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고마움의 노래, 충정의 노래를 절절히 불러 모두를 감동시키였다.

학원을 졸업하고 이 대학에 들어오는 신입생들마다 넘치는 행복의 주인공으로 되고있다.

이곳 대학초급당위원회 일군들처럼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 때 이 땅에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는 더 높이 울려퍼질것이다.

본사기자 리 정 수

단천시에서

자연흐름식수도화를 실현하여

단천시에서 자연흐름식수도화공사를 힘있게 다그쳐 성과를 거두었다.

자연흐름식수도화공사는 수십리 떨어진 곳에서 새로 관을 묻어고 2개의 수원지와 집수함크, 합기를 비롯한 시설물들을 건설해야 하는 방대한 공사였다.

자연흐름식수도화공사가 성과적으로 완공됨으로써 단천시에서는 전기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 어려 지구의 주민세대들에 수질이 좋은 먹는물을 원만히 보장해줄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이 수령님식, 장군님식인민관을 지니고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내세우며 언제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인민을 위하여 뛰고 또 뛰는 참된 인민의 충복이 되여야 한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일군들의 협의회를 열고 자연흐름식수도화문제를 토의하였으며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공사를 빠른 시일안에 결속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었다.

리동준, 김석순동무를 비롯한 시의 책임일군들은 물원천을 찾아 시안의 여러곳을 수십차례 답사하고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도 나누었다.

이 과정에 수십리에 달하는 자연흐름식수도화공사를 하면 전기를 전혀 쓰지 않고도 먹는 물문제를 풀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그러나 이 공사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많은 자재와 로력이 드는 아름차고 방대한 공사였다.

책임일군들은 능력있는 일군들로 현장지휘부를 조직하고 시안의 근로자들을 수도화공사에로 적극 불러일으켰다.

현장지휘부에서는 일정계획을 면밀히 세운데 기초하여 단위들에서 해야 할 작업과제를 명백히 주고 공사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면서 수도화공사를 전격적으로 밀고나갔다.

시당위원회에서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집중적으로 들이대여 공사장이 위훈창조로 부글부글 끓게 하였다.

공사에 동원된 근로자들은 그 어떤 강추위에도 관이 얼지 않게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보장하면서 매일 전투과제를 훨씬 넘쳐 수행하였다.

수원지건설을 비롯한 시설물공사를 맡은 단위들도 공사를 립체적으로 진행하면서 기일을 앞당겨나갔다.

그리하여 단 몇달사이에 자연흐름식수도화공사는 성과적으로 끝나게 되였다.

단천시의 일군들은 오늘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좌우명으로 삼고 헌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있다.

특파기자 김 경 철

천출위인들을 높이 모시여 민족의 력사 더욱 빛난다

유구한 반만년력사의 전로정을 더듬어볼 때 공화국의 70년력사는 매우 짧은 하나의 구간이라고도 할수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공화국의 70년력사와 더불어 절세의 위인들을 수령으로 모심으로 하여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지니게 되였으며 자기의 반만년의 력사를 온 세상에 빛내일수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중시하시고 여기에 힘을 넣으시여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온 세상에 빛내여주시였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력사는 과거를 통해 오늘과 래일을 비추어보는 거울이고 민족문화유산은 그 력사의 유구함과 그 민족의 창조적재능을 엿볼수 있게 하고 민족정신을 반영하고있는 증거물이라고 한다. 하지만 민족의 력사가 유구하고 선조들이 창조한 민족문화유산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그것이 어느때나 민족의 매 성원들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는 원천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땅속에 묻힌 진주보석도 케내야 진가를 알수 있고 빛을 뿌리는것처럼 나라의 민족문화유산도 그것을 귀중히 여기고 보호해주는 은혜로운 품이 있어야 한다.

지켜주고 빛내여줄 참다운 보호자가 없었던탓으로 하여 지난날 외래침략자들에게 수난당하고 여지없이 짓밟혀왔던 우리의 민족문화유산은 절세의 위인들의 은혜로운 품이 있어 자기의 가치를 되찾게 되였으며 그와 더불어 우리 민족의 력사는 온 세상에 빛을 뿌리게 되였다.

1

오래동안 외곡말살되여온 우리의 민족사가 세계만방에 빛을 뿌리는 단일민족의 자랑스러운 력사로 정립되게 되고 선조들이 창조한 우수한 민족문화유산들이 우리 인민들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통찰력, 천명한 령도의 결실이다.

혁명발전에서 민족사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깊이 통찰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원시사회로부터 고대, 중세,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력사적로정에서 당시까지 미해명으로 남아있거나 외곡되여있던 력사문제들을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바로잡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였다.

우리 민족이 사회력사발전의 매 단계를 정상적으로 거쳤는가, 거치지 않았는가 하는것은 학술상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 민족사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되여온 력사인가 아니면 자주적으로 발전해온 슬기로운 민족의 력사인가를 규정짓는 기본척도로서 민족의 존엄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였다.

때문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새 조국건설의 바쁘신 속에서도 모란봉에 있던 《기자묘》의 정체를 밝혀주시여 우리 민족성원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 나라에 와서 고대국가를 세웠다는 반동적인 학설의 허황성을 론증하시였다.

그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단군이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첫 고대국가를 세운 실재한 인물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히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조선사람의 기원과 우리 나라에서의 원시사회문제를 바로 해명하도록 하신분도 우리 수령님이시다.

주체65(1976)년 11월 김일성종합대학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당시의 자연박물관에 진렬된 털코끼리를 보시면서 우리 나라에 털코끼리가 있었다고 하면 반드시 털원숭이가 있었을것이라고, 그러므로 인류가 남쪽지방에서 생겨나 북쪽지방으로 퍼졌다고 단정할수 없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것은 력사학자들의 눈을 크게 띄워주었으며 조선사람의 기원과 우리 나라에서의 원시사회문제를 새로운 방향에서 독창적으로 해명할수 있게 한 근본지침으로 되였다.

정녕 어버이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통찰력이 있었기에 우리 나라 중세 첫 봉건국가였으며 국력이 강하였던 고구려의 건국년대가 B.C. 277년이라는것,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생발전과 근대부르죠아개혁운동이 력사발전의 합법칙적과정에 기초하여 진행되였다는것, 우리 민족이 이룩한 문화가 일본문화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것 등 미해명으로 남아있던 적지 않은 문제들이 새롭게 해명되여 우리 민족사의 갈피갈피가 과학적으로 정립되게 되였다.

우리의 민족사를 주체적립장에 기초하여 바로잡는 사업은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통찰력에 의하여 보다 풍만한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시기에 당시의 대학생들이 력사문제를 대하는데서 흥미본위주의에 많이 빠져있는 사실을 료해하시고 우리가 력사를 연구하는것은 지난 시기의 사실에서 경험과 교훈을 찾고 행동방향을 바로세워 혁명을 더 잘하자는데 있으며 사람들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키워주자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주체확립은 력사연구의 생명이라는 민족사연구의 근본원칙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여 우리 민족사에서 당시까지 미해명으로 남아있거나 외곡되여있던 문제들을 심오한 철의 론리로 밝혀주시였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있어서나 첫 통일국가의 출현은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되며 그것을 올제 해명하는것은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그러나 당시까지 내외반동사가들에 의하여 외곡된 견해가 사람들의 머리속에 뿌리깊이 남아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첫 통일국가형성문제는 옳게 밝혀지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시고 주체49(1960)년 10월 불후의 고전적로작 **《삼국통일문제를 다시 검토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시여 당시까지 학계에 만연하고있던 견해의 부당성을 까밝히시고 우리 나라에서의 첫 통일국가형성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명해주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과학적안목에 기초한 철의 론리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구석기시대문제, 고대국가형성문제, 초기봉건국가의 사회경제적성격에 대한 문제,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생문제, 부르죠아개혁에 관한 문제 등 우리 민족사를 바로잡는데서 의문점으로 제기되고있던 여러 문제들이 과학리론적으로 완벽하게 해명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민족사에서 지난 시기 그릇되게 평가되였던 력사적사실과 사건, 인물문제도 주체적관점에서 바로잡아주시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지난 시기 그릇되게 평가되였던 6가야문제, 중세 농민들의 반봉건투쟁에 대한 문제, 옛날 력사책들에 대한 문제, 근대시기 일제의 조선침략에 대한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을 주체적관점에서 바로잡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범한 통찰력으로 력사인물평가의 기준도 밝혀주시였다.

애국명장들을 반드시 민족의 자주권문제를 중심에 놓고 평가하여야 한다는것, 충신과 공신을 평가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것과 큰 공을 세운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것, 봉건사회의 왕들을 평가할 때 민족의 발전문제를 중심에 놓고 보아야 한다는것 등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 력사인물평가의 강령적인 지침이다.

우리 나라가 인류문화발상지의 하나라는것을 확증해주시고 단군조선으로부터 력사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을 거쳐 면면히 이어온 우리 민족사를 옳바로 정립해주시기 위하여 기울이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의 세계에 대하여 다 이야기하자면 정녕 끝이 없다.

2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우리 민족이 남겨놓은 민족문화유산이 후세에 길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온 세상에 빛내여주시였다.

책에서 습득한 력사지식은 력사유적이나 유물들을 실물로 직접 보게 될 때 더 공고하게 인식되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 민족의 매 성원의 가슴속에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애국의 마음도 함께 자라게 된다. 민족문화유산보호사업을 애국주의와 결부시켜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남겨놓은 우수한 유산들을 찾아내여 적극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였다.

해방후 김일성종합대학 교사를 건설하는 부지가 옛 성터자리라는것을 아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력사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몸소 대학터전을 다시 정하시기 위해 현지에 나가시였다. 종합대학 위치로는 여기가 참 좋은 곳이지만 토성을 없애고 교사를 지을수는 없다고, 고구려의 유적을 다문 몇m도 다칠수 없다고 하시며 친히 김일성종합대학 터전까지 옮기도록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애국의 세계에 대하여 우리 인민들은 지금도 전설처럼 외우고있다.

가렬처절하였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서울에 있는 귀중한 력사유적유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가공격시간을 날이 훤히 밝은 다음에 하도록 늦추어주시였으며 인민군군인들을 동원하여 불타없어질 위험에 처해있던 조선봉건왕조의 실록을 구출해오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조선봉건왕조의 실록을 최고사령부에 보관하도록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나라의 곳곳에 파견하시여 귀중한 민족고전들을 수집해오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선봉건왕조의 실록을 우리 대에 반드시 번역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강력한 번역집단을 무어주시고 10년 남짓한 기간에 훌륭히 번역출판하게 하시였으며 면이어 가치있는 수많은 민족고전들을 우리 말로 번역하는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그 모든것이 인민의 향유물로 되게 하여주시였다.

전후복구건설을 시작할 때 현대적인 거리를 수도에 일떠세우기 전에 대동문과 보통문을 먼저 훌륭히 복구하도록 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보통강유대의 건설방향을 제시해주실 때에는 보통문을 중심축으로 하여 새로 거리를 일떠세울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전후 수도의 중심부에 현대적인 새 영화관이 건설되였을 때에는 그 이름을 《중앙영화관》이라고 하지 말고 부근에 유명한 대동문도 있으니 《대동문영화관》이라고 부르는것이 더 좋겠다고 하신분도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대웅전과 만세루를 비롯하여 전쟁시기에 파괴된 묘향산의 력사유적들도 그자리에 원상대로 복구하도록 하시고 국보적인 가치를 가지는 《팔만대장경》의 영구보존을 위해 보존고를 따로 훌륭히 짓도록 하시여 절승을 자랑하는 명산을 고적들과 더불어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가 빛나는 인민의 명승지로 되게 하시였다.

1970년대에 당시의 만수대에 술극장을 건설할 때에도 건설부문 일군들이 건설부지안에 있던 오랜 력사유적인 숭인전을 헐어버리려 한다는 사실을 아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숭인전을 없애지 말고 원상그대로 옮겨지어 숭령전과 함께 보존하도록 하시였다.

민족문화유산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 보호사업을 그토록 중시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은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더욱 빛나게 계승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족문화유산을 적극 보호하고 옳게 계승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세계화》를 떠들며 제국주의자들이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날로 로골화하고있는 시대적환경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조들이 이룩해놓은 문화적재부를 귀중히 여겨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적전통을 적극 살려나갈데 대하여》**, **《력사문화유적이 많은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다》**, **《민족음식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를 비롯한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민족문화유산보호사업의 본질과 중요성,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과 기본요구, 과업과 방도 등에 대한 강령적지침을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시였다.

이와 함께 민족의 풍습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민족음식과 민속명절의 명칭문제는 물론 상모의 길이와 치마저고리색갈에 이르기까지 해당 부문의 전문가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풍습내용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시였다.

사리원시에 건설된 민속거리를 찾으시여서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살리며 애국주의교양에 이바지할수 있는 좋은 일을 하였다고 과분한 평가도 주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드시여 왕릉들이 훌륭히 개건보수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3(1994)년 10월에는 단군릉을, 주체85(1996)년 3월에는 왕건왕릉을 몸소 찾으시여 유구한 력사와 민족의 슬기를 대를 이어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리고 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나날에도 보항산력사박물관과 광전사, 개심사, 월정사 등 력사유적들을 돌아보시면서 력사문화유적들에는 우리 인민의 우수한 건축술과 뛰여난 예술적재능이 깃들어있는것만큼 보존관리사업에 관심을 돌려 인민들에게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여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날 일제에 의하여 강탈당하였던 북관대첩비도 되찾아오도록 하시고 주체97(2008)년 5월 함경북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서 원상대로 세워진 비를 돌아보시며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불의와 압제를 추호도 허용하지 않은 자주성이 강한 용감한 인민이라고 하시면서 귀중한 력사유적인 북관대첩비를 잘 보존관리하며 그를 통한 교양을 실속있게 벌림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귀중한 력사문화재부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국제적인 교류와 협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벌어지게 되였으며 고구려벽화무덤들과 개성일대의 주요력사문화유적들, 민요 《아리랑》과 김치담그기풍습 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는 성과도 이룩되게 되였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통찰력, 현명한 령도가 있어 우리 민족사는 내외반동사가들의 외곡말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유구하고 찬란한 력사로 정립될수 있었으며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문화유산들이 적극 보호되고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이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될수 있었다.

* *

력사란 먹으로 지울수도 없고 불로 태울수도 없으며 검으로 찍을수도 없는것이다.

허나 력사는 그 창조자인 인민대중을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우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 애국심이 빛을 뿌리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는 절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셨을 때에야 참되게 정립되고 후세에 길이 전해질수 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듬어보며 우리가 찾게 되는 또 하나의 력사의 진리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혁명의 전두에 높이 모시여 우리 나라의 민족문화유산보호사업은 오늘날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지니고 신심드높이 전진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3(2014)년 10월 불후의 고전적로작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를 발표하시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민족유산보호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며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더욱 빛내여나가도록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신다.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70년력사와 더불어 우리 인민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여 단일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우수한 민족적전통을 더욱 찬란히 빛내여나갈것이다.

본사기자 백성근

립체를동영화제작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옥란광명회사에서—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완강한 실천력과 높은 실적

‖ 박천고치생산사업소에서 ‖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당정책관철의 제일기수인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혁명적으로 개선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어린누에잠실은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뽕류러조종실, 알깨우기방, 여러개의 어린누에잠실, 뽕잎저장실로 이루어져있는데 매우 실리적으로 건설되였다.

우선 수십명의 로력을 절약하게 된다. 지난 시기에는 어린누에잠실의 온습도보장, 물뿌려주기 등의 공정을 말아보는 4~5명의 로력이 있어야 하였다. 또한 알깨우기시기에는 매 분조에서 2명씩 동원되여 사업소적으로는 120명의 로력이 들군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뽕류러조종에 의하여 온습도가 자동적으로 조절되기때문에 2명의 로력이면 충분하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지난 시기에는 알깨우기를 분산적으로 진행하다 나니 아무리 책임적인 사람들을 선발배치한다고 하여도 위생조건을 철저히 보장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한곳에서 사업소의 알깨우기를 공동으로 진행함으로써 위생조건이 거의 무균화의 수준에 도달했다는것이 과학적으로 확증되였다.

이곳을 돌아본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다. 사업소자체의 힘으로 이렇듯 높은 수준의 어린누에잠실을 건설하고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추어놓았다는것이 선뜻 믿어지지 않는다고.

성과는 어떻게 마련된것인가.

지난봄이였다. 지배인 김창룡동무가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는 올해에 청년작업반에 건설하던 능력이 큰 어린누에잠실을 완공하자는 안을 내놓았을 때 선뜻 지지해나선 일군들보다는 놀라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당면한 누에치기만 하자고 해도 일손이 모자라는데 어디서 로력을 얻어내며 그 많은 자재는 또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하는것이 그들모두의 공통된 생각이였다. 더구나 부지쟁이도 바쁜 사업소가 전투분위기로 들끓었다.

일군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처음부터 높은 목표를 세우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갔다. 일군들이 앞세를 메고 큼직큼직한 일감들을 맡아나섰다. 제대로 뛰는다는 이 봄철에 일판만 크게 벌려놓았다가는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격이 될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립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일을 하자고 하는 사람에게는 막혔던 길도 열리지만 맥을 놓고 주저앉는 사람에게는 열렸던 길도 막히는 법이다. 누에치기를 전문으로 하는 우리 사업소에서 낡은 고치생산방법이나 경험만 가지고서는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누에치기의 과학화를 실현하는것은 곧 생산장성의 지름길을 열어놓기 위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힘과 지혜를 합쳐나가자.

그의 불같은 호소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당의 뜻대로 앞선 누에치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고치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갖추어놓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박천고치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종전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현대적인 수백㎡의 어린누에잠실을 새로 건설하여 고치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당정책관철의 제일기수인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혁명적으로 개선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어린누에잠실은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뽕류러조종실, 알깨우기방, 여러개의 어린누에잠실, 뽕잎저장실로 이루어져있는데 매우 실리적으로 건설되였다.

우선 수십명의 로력을 절약하게 된다. 지난 시기에는 어린누에잠실의 온습도보장, 물뿌려주기 등의 공정을 말아보는 4~5명의 로력이 있어야 하였다. 또한 알깨우기시기에는 매 분조에서 2명씩 동원되여 사업소적으로는 120명의 로력이 들군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뽕류러조종에 의하여 온습도가 자동적으로 조절되기때문에 2명의 로력이면 충분하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지난 시기에는 알깨우기를 분산적으로 진행하다 나니 아무리 책임적인 사람들을 선발배치한다고 하여도 위생조건을 철저히 보장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한곳에서 사업소의 알깨우기를 공동으로 진행함으로써 위생조건이 거의 무균화의 수준에 도달했다는것이 과학적으로 확증되였다.

이곳을 돌아본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다. 사업소자체의 힘으로 이렇듯 높은 수준의 어린누에잠실을 건설하고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추어놓았다는것이 선뜻 믿어지지 않는다고.

성과는 어떻게 마련된것인가.

지난봄이였다. 지배인 김창룡동무가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는 올해에 청년작업반에 건설하던 능력이 큰 어린누에잠실을 완공하자는 안을 내놓았을 때 선뜻 지지해나선 일군들보다는 놀라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당면한 누에치기만 하자고 해도 일손이 모자라는데 어디서 로력을 얻어내며 그 많은 자재는 또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하는것이 그들모두의 공통된 생각이였다. 더구나 부지쟁이도 바쁜 사업소가 전투분위기로 들끓었다.

일군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처음부터 높은 목표를 세우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갔다. 일군들이 앞세를 메고 큼직큼직한 일감들을 맡아나섰다. 제대군인들을 핵심으로 하는 돌격대가 조직되여 일자리를 죽죽 냈다. 그들과 경쟁을 건 청년작업반원들의 승벽심도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주야전투가 계속되는 속에 드세찬 경쟁열풍으로 시간마다 혁신을 창조해나갔다.

힘은 좀 들더라도 후날에도 손색이 없게 꾸려놓자.

이것이 이들모두의 한결같은 생각이였다.

난관에 부닥칠 때마다 일군들은 절린 문제를 푸는 보안은 대중의 머리속에 있다는 관점에서 대중의 창의창발성과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시켜나갔다.

특히 일단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끝장을 보고야마는 지배인의 기질은 종업원들의 일본세에 그대로 옮겨져 누구나 두몫, 세몫을 해제꼈다. 가족들도 싱의껏 마련한 음식들을 안고 매일같이 찾아와 밤늦게까지 일손을 놓지 않고 기세를 올리는 전투원들의 사기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결과 계획보다 두달이나 앞당겨 어린누에잠실은 성과적으로 완공되여 알깨우기를 시작하게 되였다.

이 나날은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무슨 일이나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서면 못해낼것이 없다는 신념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은 나날이기도 하였다.

해놓은 일에 대한 남다른 긍지와 보람, 배짱과 일욕심이 더욱 커진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였다.

몇해전에 조직된 청년작업반을 본보기단위로 꾸리기 위한 대담한 작전안이 세워졌다.

함숙개건과 축산기지건설…

일감은 아름차고 부족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노래소리, 웃음소리 넘쳐나는 속에 날에날마다 그 면모가 달라지고 완공의 날이 눈앞에 다가오고있다.

최근 사업소에서 이룩되고있는 자랑찬 성과들은 당정책관철의 제일기수인 일군들의 혁신적인 사업기풍과 완강한 실천력이 안아온 결실이다.

본사기자 박영진

최고인민회의가 수리아인민회의대표단을 위하여

연회 마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수리아인민회의대표단을 위하여 2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나즈다트 안조르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리아인민회의대표단 성원들과 딸람 쌀레이만 주조 수리아아랍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초대되였다.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안동춘동지, 조선수리아친선의원단 위원장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 의장 최진수동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판계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바샤르 알아싸드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수리아인민회의대표단 도착

나즈다트 안조르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리아인민회의대표단이 2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외무성 부상 박명국동지와 딸람 쌀레이만 주조 수리아아랍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맞이하였다.

년간굴진계획을 앞당겨 완수

덕성탄광 강호영청년돌격대원들이 지난 9월 29일현재 년간 굴진계획을 완수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이 나날 청년돌격대 초급일군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의 년간계획을 앞당겨 끝내는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청년돌격대원들에게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벌리는 한편 실천적모범으로 그들을 혁신에로 불러일으켰다.

계획수행기간 돌격대원들은 앞선 발파방법을 받아들여 발파효률을 종전보다 더 높이는 등 합리적인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도입하여 굴진속도를 높이였다. 또한 이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부족되는 동발을 자체로 보장하는 모범을 보이였다.

성과에 자만을 모르는 이곳 청년돌격대원들은 올해말까지 년간계획을 1.5배로 넘쳐 수행할 목표를 세우고 계속혁신, 계속전진, 련속공격전을 벌리고있다.

로농통신원 연전형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김경애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2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사회주의 우리 제도가 제일입니다

저에게는 뜻하지 않은 일로 두살잡히던 해부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외손자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온 집안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느덧 일곱살이 되자 손자에는 다른 아이들처럼 유치원에 가겠다고 떼를 쓰군 하였습니다. 온 집안이 그애를 얼리였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유치원원장과 교양원은 저의 손자를 유치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보다 더 잘 돌보아주었습니다.

몇해후 어느날 사위가 일하는 기업소의 한 당일군이 찾아오더니 손자를 성천군에 있는 통아학교에 보내자고 하는것이였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하였습니다. 그 학교에 가자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몰랐기때문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보낼 생각을 하지 못했던것입니다.

며칠후 저는 손자를 데리고 그 학교에 갔습니다. 저희들을 반가이 맞아준 교장선생은 당의 은정속에 장애자어린이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배우며 행복을 누리고있는데 대하여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사실이였습니다. 교육시설들이 그윽하게 갖추어진것은 물론 식사와 침실조건 그리고 문화후생시설도 훌륭하였습니다. 더욱 저의 가슴을 뜨겁게 한것은 장애자어린이들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는 일군들과 교원들의 모습이였습니다.

그들뿐이 아닙니다. 저의 손자가 방학으로 집에 왔다가 갈 때마다 친자식처럼 돌보아준 유치원원장과 교양원, 이웃들, 인민보안원…

정말이지 저는 이 땅의 천만자식들을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는 우리 당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것인지 미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심장으로 절감하였습니다. 희망한 대가정을 이룬 사회주의 내 나라가 제일이라는것을.

순천시 대남리 43인민반 고금실

유훈관철로 끓어번지는 영광의 일터

훌륭히 개건현대화된 평천랭동공장을 돌아보고

며칠전 안팎으로 멋쟁이인 평천랭동공장을 돌아본 우리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하나의 랭동공장을 새로 건설하는것과 맞먹는 방대한 개건공사를 녀성들이 대부분인 창광공사관리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체의 힘으로 해냈다는 사실이 우리를 몹시 흥분시켰던것이다. 수령의 유훈관철전에 과연 어떤 각오를 안고 뛰여들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감동깊이 보고 듣고 느낄수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몇해전 어느날 관리국책임일군으로 임명되여온 조성심동무는 평천랭동공장개건공사장에서 오래동안 굳어진 자리틀을 못하였다.

들어낸 설비들, 까낸 벽체무지들… 자재들이 따라서지 못해 공사가 중지된지 몇달째라고 했다.

이 공장이 과연 어떤 공장인가. 수도시민들에게 물고기를 정상적으로 공급하자면 물고기를 저장할수 있는 랭동고를 빨리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몸소 풀어주시여 일떠선 공장이 아닌가.

수십년전 한여름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공장을 찾으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뜨겁게 어려왔다.

그날 개건공사를 다그쳐 끝낼 결심을 다진 조성심동무는 건설자재를 구하기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여다녔다. 많은 철근을 실어오고 집에서 마련한 생활필수품들과 식료품들도 안겨주며 돌격대원들을 고무해주는 그의 진정은 사람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어느날 벽돌이 모자라 공사가 다시 중단될 난관이 조성되였을 때였다.

그는 랭동공장의 한 일군과 함께 어느 한 벽돌공장을 찾아갔다.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있는가고 묻는 그 일군에게 조성심동무는 확신에 넘쳐 말했다. 그 공장 로동계급이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여가려는 우리의 진심을 알게 되면 꼭 도와줄것이라고.

그들은 여러날동안 로동자들을 도와 생산현장에서 부지런히 일손을 놀렸다. 그 과정에 이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알게 된 공장에서는 증산투쟁을 벌려 필요한 벽돌을 보장해주었다. 중기계가 없어 일자리가 나지 않을 때에도 그는 새벽길을 걸으며 끝내 해결하고야말았다. 관리국 일군들도 저저마다 두팔걷고 나서 한몸 단단히 하였다.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여가려는 대중의 마음은 불보다 뜨거웠다. 가족들까지 동원하여 자재보장사업에 큰 기여를 했던것이다.

그해중으로 공사를 끝낼것을 당결정으로 못아박은 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긴박한것은 시간이였다.

5 600㎡의 타일붙이기와 5 000여㎡의 구내피치로장, 나무심기…

일군들은 사무실을 전투장으로 옮기고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었다. 너도나도 봉사활동이 끝나면 공사장으로 달려나왔다. 석달 남짓한 사이에 기적은 일어나고야말았다. 현대적으로 개건된 공장에서 랭동설비들이 기운차게 가동했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자자구구 가슴에 새겨보던 일군들은 지금껏 해놓은 일이 시작에 불과하다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이들은 절세위인들의 유훈을 한구절한구절 새겨가며 일감을 찾았다. 우선 랭동창고에 2중문을 설치하고 랭판공사를 다시 진행하여 초급동결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감자가공품, 빵, 만두 등의 생산기지들을 개건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낡은 생산기지들을 통채로 개건해야 하는 이 사업 역시 간단한 일이 아니였다.

일군들은 최근년간에 현대적으로 일떠선 식료품생산기지들을 돌아보면서 형성안을 완성한데 이어 개건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리고 위생통과실과 랄의실을 꾸려놓고 설비들을 개조하여 생산공정들을 하나하나 갖추어나갔다. 불과 한해동안에 11종에 수백의 생산능력을 가진 생산기지들이 꾸려져 큰 은을 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공장을 단가동시킬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자면 랭동설비에서 심장부라고도 할수 있는 압축기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보아주신 설비가 계속 은을 낼수 있게 자체의 힘으로 개조할것을 맹가하였다.

국장 박경호, 공장일군들인 림성환, 전은옥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현장에서 로동자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며 전투를 벌려나갔다. 그 과정에 압축기의 능력을 높이고 암모니아냄새를 제거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았다. 얼마후 이들은 힘차게 울리는 압축기의 동음을 들으며 기쁨속에 서로 얼싸안고 울고웃었다.

몇해전에는 얼음을 생산하여 평양시안의 빙수매대들에 공급할데 대한 당의 과업을 받아안고 불과 10여일동안에 얼음생산설비를 갖추어놓고 빙수용얼음생산을 정상화하는 놀라운 성과도 창조하였다.

한편 이들은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고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고기절단기, 공기차단기, 얼음깎는기계 창안제작, 랭동압축기에 경보장치를 도입하여 설비의 정상가동 보장, 랭동창고들에 자동온도수감부를 설치하여 각종 원자재들에 대한 보관온도 보장을 과학적으로 진행, 기계작업반에 암모니아검출 및 자동회석장치를 창안도입하여 작업조건 개선, 콤퓨터에 의한 종합지령체계 확립…

이들의 비상한 창조정신과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은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 연혁소개실, 회의실을 비롯한 교양기점들을 보다 정중히 꾸릴데에도, 50t능력의 감자보관고와 100t능력의 고구마보관고를 건설할 때에도, 수심m깊이까지 우물을 파고 건강한 물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유감없이 발휘되였다.

청사주변정리와 공원꾸리기, 나무심기도 진행하고 식당, 목욕탕, 리발실, 미용실도 보란듯이 개건 및 건설하여 공장안팎을 위생문화적으로 깨끗이 꾸릴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사업에서도 큰집음을 내짚었다.

이와 더불어 창광음식점거리에 인민의 행복의 웃음꽃이 더 활짝 피여나고있다.

지금은 이곳 랭동공장에 포장용기생산공정까지 갖추어놓았다. 여기서 각종 크기로 포장되여나오는 질좋은 얼음은 사람들속에서 그 수요가 매우 높다고 한다.

얼마전 평천랭동공장에 3중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되였다.

하지만 관리국과 공장일군들은 누구도 유훈관철사업이 끝났다고 생각지 않는다. 오늘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집행대장을 펼쳐놓고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있다.

절세위인들께서 가르쳐주신 길로 언제나 곧바로 나아갈 때 보다 눈부신 래일이 마중오기에.

본사기자 김명훈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더 많이

사회과학원에서

공화국창건 7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인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전체 인민이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혁신의 불길, 증산돌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가운데 사회과학원의 일군들과 과학자들도 과학연구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과학원은 높은 과학연구성과로 우리 당을 과학리론적으로 옹호하고 당과 국가의 정책작성에 도움을 주며 나라의 전반적사회과학발전을 선도하고 추동하여야 할 중대한 사명을 지니고있습니다.》

사회과학원 당조직에서는 모든 연구단위들에서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을 과학리론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데 중심을 두고 연구목표들을 대담하게 높이 세우고 연구력량을 집중하여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이룩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학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의의있는 도서들을 집필련찬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사회정치학연구소, 경제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 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리론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도서를 완성하기 위한 사업에서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경제연구소의 과학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밝히신 지식경제강국건설에 관한 사상을 해설한 도서를, 법률연구소의 과학자들은 공화국의 70년력사를 종합적으로 개괄한 도서를, 주체문학연구소, 력사연구소, 고고학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주체조선의 심장이며 우리 공화국의 수도인 평양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소개한 도서를 완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였다.

이와 함께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 이바지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도 큰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당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평양화장품공장을 비롯한 여러 생산단위들에 나간 경제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현실에서 온을 나타내도록 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찾아쥔데 기초하여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안을 완성하였다.

뿐만아니라 이곳 과학자들은 이미 국가콤퓨터망에 사회과학원홈페지를 개설한데 이어 과학연구사업과 경영활동전반을 콤퓨터화, 정보화하기 위한 사업을 다그치고있다.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빛내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도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민속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우리 민족의 전통옷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조선옷과 관련한 자료집을 전자출판물로 편찬하여 련관단위들에 보내주었으며 세계적으로 이름난 개성고려인삼과 관련한 연구성과들을 집대성한 도서를 품위있게 완성하기 위한 집필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고고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올해에 강원도 판교군 사동리에서 고려시기의 제일 큰 절간유적을 발굴하는 성과를 이룩한데 이어 평양시 만경대구역, 락랑구역, 평안남도 숙천군, 함경남도 홍원군 등을 답사하면서 유적유물들을 조사발굴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림으로써 수십점의 구석기시대의 유물들을 발굴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민족고전연구소의 과학자들도 가치있는 민족고전들을 번역하여 우리 인민의 귀중한 향유물로 되게 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중세기 우리 나라 인쇄기술의 발전면모를 보여주는 민족고전 《팔만대장경》을 전면번역하기 위한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는 한편 우리 나라 4대일기체형식의 민족고전들중의 하나인 《일성록》을 전면번역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사회과학원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사회과학발전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추동하는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더 많이 이룩할 신심드높이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고있다.

본사기자

실천형의 인재육성에 힘을 넣어

숙천농업대학 일군들과 교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원들은 후대들을 조국의 귀중한 혁명인재로 키우는 혁명가들입니다.》

최근 몇년사이에 숙천농업대학에서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능률높은 영양단지모내는기계 개발, 나무씨뿌리는기계 연구제작, 우리 식의 식물조직배양시약들을 개발…

이 대학에서 실천적으로 온을 내는 이러한 연구성과들을 이룩한 과정을 보면 주목할만 한것이 있다.

그것은 여기에 대학안의 교원, 연구사들만이 아닌 학생들의 창조적사색과 노력도 깃들어있다는것이다.

대학시절에 벌써 자기의 창조물을 마련해가는 미더운 대학생들의 뒤에는 그들을 실천형의 인재들로 키우기 위해 불타는 열정을 바쳐가는 대학일군들과 교원들이 서있다.

대학에서는 지난 시기 탐구의 열풍을 일으켜 수많은 연구성과들을 이룩하는것과 함께 교육의 질을 부단히 높여 학생들을 농업과학실천에 이바지할수 있는 기술인재로 튼튼히 키우는 사업에 큰 힘을 넣어왔다.

학장, 부학장을 비롯한 대학일군들은 이 사업에서 기본고리를 실험실습을 강화하기 위한 실리있고 우월한 교수방법을 창조하는데서 찾았다.

이들은 앞선 대학들의 실험실습실들을 돌아보고 그 운영경험들에 대해 알아본데 기초하여 현실성있는 사업계획부터 세웠다.

여기서 일군들이 중시한것은 학생들이 대학기간에 쌓모있는 지식을 더 많이, 더 빨리 습득하게 하는데서 교원들의 역할을 보다 높일수 있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드는것이였다.

대학에서는 새로운 교수방법의 창조에 앞서 교원들속에서 콤퓨터실기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교수에 필요한 프로그람들을 자유자재로 개발해낼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강습을 조직하였다.

강좌별로 경쟁을 붙여 여러가지 실험들에 해당한 모의프로그람들을 작성하도록 하는것과 동시에 다기능화된 교실의 교육설비들을 종합적으로 리용하는 관리체계프로그람들을 개발할데 대한 과업도 맡겨주었다.

서로 돕고 이끌며 교원들속에서 실력전의 열풍이 일어번지는 속에 대학에서는 년초에 세운 수십건의 프로그람개발목표를 거의 완성할수 있게 되였다.

전반적인 교원들의 콤퓨터실기능력이 높은 수준에 이른데 기초하여 대학에서는 자체실정에 맞는 새로운 교수방법들을 적극 창조하도록 교원들을 추동하였다.

품을 들인 보람이 있어 적지 않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기초과목들의 교수내용을 전공과목들의 교수내용과 밀접히 결부시키는 실리있는 교수방법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새로운 교수방법들이 창조되였다. 하여 기초과목들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높여줄뿐만아니라 그들이 전공부문 실력을 높이도록 하는데 크게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학생들에게 현실에 쓸모있는 산지식을 배워주기 위한 새 교수방법창조의 열풍속에 강의와 생산현장을 결합시키는 포전실기교육방법도 더욱 발전하게 되였다.

이렇듯 대학교원들속에서 실리있고 우월한 교수방법창조를 위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가운데 좋은 안들이 련이어 나오고 새 교수방법등록증소유자대렬이 늘어나게 되였다.

피타는 사색과 탐구로 과학연구사업과 교수사업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해나가는 이곳 교원들과 그들을 적극 떠밀어주는 대학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학생들을 대학시기에 벌써 조국앞에 창조물을 내놓는 실천형의 인재로 키우는 자양분으로 되고있다.

김수정

혁명적열의를 북돋아주는 선전활동

평안북도출판물관리국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사업에서 우리 당의 전략전술은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으로 사상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온 나라가 혁명적대고조의 불도가니로 부글부글 끓게 하는것입니다.》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으로 들끓는 평안북도의 시, 군,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 가보면 도서해설선전활동을 벌리는 당사상전선의 전초병들의 미더운 모습을 찾아볼수 있다. 그들이 바로 평안북도출판물관리국의 일군들과 시, 군출판물보급소의 출판물보급원들이다.

이들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도서해설선전활동을 활발히 벌려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로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출판물관리국에서는 지난 기간 출판물보급사업과 도서해설선전활동을 활발히 벌려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대고조진군에로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출판물보급소에서는 위대성도서가 나오자 집체적으로 모여앉아 도서해설선전원고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준비를 갖춘 출판물보급원들은 직관물과 손풍금을 메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달려나갔다. 예술선동과 결합하여 벌리는 이들의 도서해설선전활동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정주시출판물보급소에서도 시안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나가 도서해설선전을 활발히 벌려 증산돌격운동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북돋아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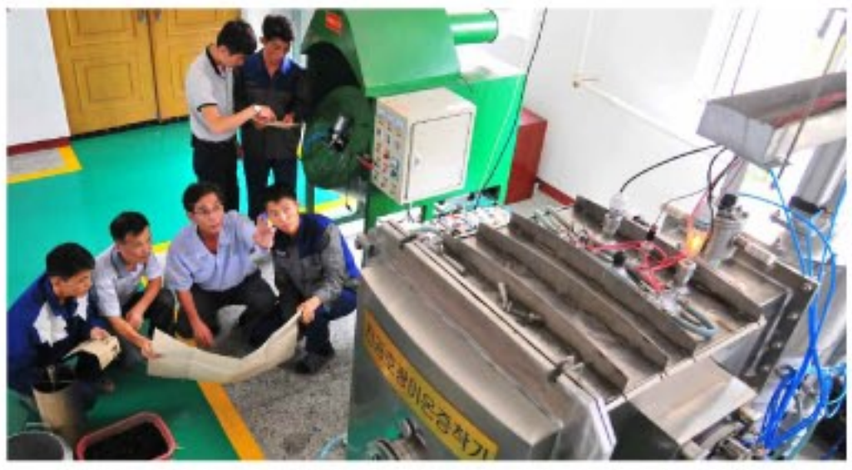
염주군출판물보급소의 출판물보급원들도 당사상전선의 전초병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도서해설선전활동을 벌려 그 실효를 높이였다.

구장군출판물보급소에서는 신흥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나가 도서해설선전과 예술선동활동을 배합한 경제선동을 벌려 대중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투쟁에로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이밖에도 의주군, 삭주군, 박천군출판물보급소들을 비롯한 도안의 여러 군출판물보급소들에서도 출판물보급사업과 도서해설선전을 활발히 벌리였다.

도출판물관리국의 일군들과 시, 군출판물보급소의 출판물보급원들은 증산돌격운동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도서해설선전활동을 적극 벌려 광범한 대중을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특파기자 송향윤



현실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에서— 본사기자 최충성 찍음

우리 선생님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만들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후대교육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교원들속에는 운전군 구현고급중학교 교원 서순영동무도 있다.

지난 20여년을 하루와 같이 학생들을 나라의 기둥감으로 키우기 위하여 불같이 일해온 서순영동무를 가리켜 사람들은 《우리 선생님》이라고 정답게 부르고있다.

그는 자신부터가 솔선모범을 보이면서 학생들에게 김정일애국주의를 깊이 심어주고있다.

또한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원리적으로 쉽게 리해할수 있도록 능란하고 다양한 교수방법을 끊임없이 탐구하고있으며 이 과정에 10월8일모범교수자, 새 교수방법등록증소유자의 영예도 지니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학생들의 생활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며 뜨거운 정을 부어주고있다.

언제인가는 다리를 상한 한 학생을 자전거에 태우고 등교길을 오갔으며 그의 학과실력을 높이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바쳤다.

오늘도 서순영동무는 《우리 선생님》이라는 정다운 부름속에 교육자로서의 삶의 자욱을 뚜렷하게 새겨가고있다.

로농통신원 배영린

당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가는 참된 의료일군들

금야군제2인민병원 산부인과 의사 맹영란동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과 높은 의학기술로 사회주의보건제도를 지켜가는 참된 의료일군들중에는 금야군제2인민병원 산부인과 의사 맹영란동무도 있다. 그는 지난 10여년간 수천명의 임산부들과 갓난아이들을 맡아 성과적으로 치료하였으며 그가운데서 소생시킨 중환자는 500여명이나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보건부문에서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치료예방사업에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이 더 잘 미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환자들에 대한 맹영란동무의 지극한 정성과 그의 높은 실무적자질에 대하여 보여주는 하나의 사실이 있다.

지난 4월말이였다. 병원 산부인과에는 한 로동자의 안해가 입원하게 되였다. 그의 몸상태는 매우 좋지 못하였다. 나이는 36살인데 임신후반기중독증세가 아주 심하였다. 이런 임신부인 경우 난산위험성이 뒤따르는것은 물론이고 특히 해산할 때 출혈, 경련, 갓난아이가사활률이 높다.

결과는 예상했던대로였다. 출생한 아이가 중증가사상태에 빠져있었던것이다.

중증가사는 반사기능과 근육긴장이 전혀 없고 심장박동도 매우 약한것으로 하여 갓난아이에게 있어서는 매우 위험한 상태이다. 이런 갓난아이는 소생하기 힘들 때도 있고 부모들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긴장한 소생전투가 벌어졌지만 차도가 없는 갓난아이를 두고 그의 부모와 친척들까지도 손뼉을 놓고 눈물만 흘렸다.

하지만 친부모와 혈육들조차 도리머리를 젓던 그때 끝까지 갓난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의사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맹영란동무였다.

소생전투는 순간도 멈춤없이 진행되였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아이를 놓고 땀낯을 이어 치료하는 그를 두고 공연한 수고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를 낳은 어머니조차 지쳐 잠든 깊은 밤에도 조산원인 유정애동무와 함께 뇌대사부활제, 비타민제를 비롯한 갖가지 약들과 영양액들을 합리적으로 주입하면서 맹영란동무가 바친 지극한 정성은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 기적을 낳고야말았다. 끝내 아이가 고고성을 힘껏 터치며 모든 생명지표들이 정상으로 되였음을 알린것이다.

맹영란동무가 성의껏 마련한 꽃포단에 아이를 정히 싸안아 산모에게 안겨줄 때 산모는 물론이고 가족, 친척들이 모두 눈물을 줄줄 흘리며 울었다고 한다.

세상에 이런 고마운 제도가 또 어디 있는가고, 치료비 한푼 낸것도 없는 자기들에게 다 죽었다고 여겼던 생명을 기적같이 살려내여 안겨준 사회주의를 무슨 말로 다 표현하겠는가고 저저마다 격정을 터치는 모습은 진정 이 땅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감동적인 화폭이였다.

하지만 온 세상에 자랑할만한 이처럼 훌륭한 일을 해놓은 맹영란동무의 대답은 너무도 소박하였다.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것은 우리 의사들의 본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병원에는 저보다 더 훌륭한 의사선생님들이 많답니다.》

그러면서 그는 병원에는 환자들을 위해 수십년간 자기의 피를 아낌없이 수혈해준 의사도 있고 뜻밖의 일로 가족들을 잃고서도 변함없이 초소를 지켜가는 의사도 있다고, 병원의 로일군들모두를 걸음걸음 당의 뜻대로 숨쉬는 참된 보건일군들로 되도록 이끌어주는 초급당위원장 리정화동무에 대하여 소개해줄것을 절절히 부탁하는것이였다.

산부인과 과장이기도 한 리정화동무는 알고보니 사람들의 마음속고충을 어머니심정으로 따뜻이 풀어주어 두해전에 당보에 소개되였던 훌륭한 당일군이였다. 두다리를 잃은 남편과 살아오면서도 지난 수십년간 환자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쟁그리 바쳐온 의료일군, 의사들모두가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뼈와 살로 간직하도록 아글타글 애쓰는 이런 일군이 있어 병원에는 감동없이 들을수 없는 사랑과 정성의 미담들이 샘솟듯 태여나는것이였다.

당의 품속에서 어엿한 보건일군으로 자라난 맹영란동무는 오늘도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치료예방사업을 위하여 재능과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어머니당의 고마운 손길이 되여.

본사기자 리건

황해북도인민병원 동위원소과 책임간호원 김경녀동무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세월이 네번도 훨씬 더 흐른 4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황해북도인민병원 동위원소과 책임간호원 김경녀동무는 한직종에서 일해오고있다.

위생복을 처음 입었던 그날의 한모습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환자들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 바쳐가고있는 그를 보고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강산이 변해도 달라지지 않는것이 바로 환자들을 위해 바치는 김경녀동무의 뜨거운 정이라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에게 있어서 참된 삶의 보람과 가치는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집단의 사랑과 믿음을 받으며 사는데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러하듯이 김경녀동무의 가슴속에도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떼던 때가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되여있다.

19살의 애어린 나이에 간호원학교를 졸업한 그가 병원적으로 제일 어려운 초소로 자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다.

년한이 많은 간호원들도 선뜻 가기 저어하는 부문에서 나이도 어린 그가 꿋꿋 견디여내겠는가고.

그러나 이때 오랜 보건일군들중의 한사람이였던 병원의 한 일군은 제일처럼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약절반, 마음절반이란 말이 있듯이 환자치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이 그들을 대하는 간호원들의 눈빛이라고 생각하오. 어떤 일이 있어도 환자들을 대하는 우리 보건일군들의 눈빛에는 변함이 없어야 하오.》

김경녀동무는 이 말을 한생의 좌우명처럼 안고살았다.

고난의 시기 두 아들의 배도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던 어머니의 피로움도, 뜻밖에 남편을 잃은 상실의 아픔도 이 말과 함께 가슴속깊이 묻어두고 그는 오직 웃는 모습으로 환자들앞에 나섰다.

언제나 한모습으로 깊은 밤에도, 이른새벽에도 순간의 주저나 사심도 없이 병원으로 달려나갔고 환자들을 위해 피와 살도 서슴없이 바쳤다.

그 헌신의 나날속에 입원호동의 뜨락에는 크지 않은 남새밭도 생겨나게 되였다.

간호원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중환자간호를 자진해서 맡군 했던 김경녀동무가 환자들의 입맛을 돋구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남새를 자기 손으로 가꿀 생각을 하게 된것은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이였다고 한다.

환자치료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그들의 영양보충을 잘해주는것인데 그러자면 여러가지 원인으로 하여 떨어진 입맛을 빨리 추켜세우는것이 필요했다.

김경녀동무는 입원호동의 뜨락에 밭을 일구고 거기에 부루며 쑥갓 등 남새들을 심어가꾸기 시작했다.

그의 정성이 깃든 음식들을 맛아안고 환자들이 얼마나 기뻐했던가.

이렇게 오랜 세월 환자들의 건강회복을 위해 아글타글 애쓰며 진심을 바쳐온 그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간호원어머니》라고 정답이 부르며 존경했다.

우리는 이 글에서 김경녀동무가 수십년동안 간호원으로 일하면서 환자들을 위해 지극한 정성을 바쳐온 나날들에 있었던 가지가지 사연들을 다 이야기할수 없다.

그러나 《우리 간호원어머니》라는 소중한 부름속에 그 모든 이야기가 응축되여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만사람의 축복속에 김경녀동무가 공훈간호원칭호를 수여받던 그날 소독내가 밴 그의 손에 꽃다발을 안겨주며 제대된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간호원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이것은 수십년세월 김경녀동무가 바쳐온 사랑과 정성으로 새 생명을 맡아안은 수많은 사람들 아니 도안의 인민들과 의료일군들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인 동시에 우리가 더놓고싶었던 진정이기도 했다.

오늘도 김경녀동무는 간호원시절의 첫걸음을 떼던 45년전의 그 모습으로 헌신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성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출중한 령도자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또 하나의 새로운 리정표가 마련된데 대하여 온 세계가 또다시 큰 충격을 받고 경탄을 표시하고있다.

미국의 조선문제전문가들도 《조선의 최고령도자께서 전략적이며 주도세밀한 정치술로 조선반도평화보장을 위한 기본열쇠를 확고히 장악하시였다.》,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자신감을 과시하시였다.》고 하면서 세인을 놀래우는 특기할 사변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출중한 령도력과 위인상에 대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미국의 CNN방송은 북조선령도자의 외교술이 국제적인 이목을 끌고있다, 군사적긴장완화 등 지난 시기 달성하지 못한 항구적인 평화보장과 관련한 예민한 문제들이 오늘 북조선령도자에 의하여 실현되고있다는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자신감에 넘쳐있는 북조선령도자의 모든 행동을 보면 세계가 조선의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신뢰할만 하다, 북조선령도자의 모습은 세계가 조선을 재평가해야 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고 보도하였다.

미국인터네트홈페지 VOX, 영국신문 《텔레그라프》를 비롯한 서방의 여러 언론들은 이번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은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정치와 전략이 은을 내고있다는것을 보여준 계기로 되였다고 전하였다.

그렇다. 성과적으로 진행된 제5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 《9월평양공동선언》의 채택은 북남관계발전을 가속화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계속 이어나가시려는 확고한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과감한 결단과 특출한 령도실력이 낳은 민족사적대장정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이 땅우에 화해와 단합, 평화의 새시대가 펼쳐지고 조선반도를 축으로 세계정치정세가 급변하는 경이적인 사변이 일어났다.

조선반도는 온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세계의 중심으로 되였다.

사실 그 누구도 올해에 들어와 그렇게 짧은 기간에 3차례의 극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들이 진행되고 좋은 합의들이 이룩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그러졌던 북남관계가 바로잡히고 화해와 평화를 향한 의의있는 성과들이 마련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였다.

장장 수십년간 조선반도에서는 첨예한 대결이 지속되여왔기때문이다.

또 지난해 남조선에서 동족대결에 매달리던 보수《정권》이 무너졌지만 북남관계에서는 달라진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정세가 더욱 험악해졌기때문이였다.

하지만 올해에 들어와 조선반도정세는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 겨레에게 하루빨리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는 확고부동한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같은 헌신과 로고에 의하여 이 땅우에서는 세계를 격동시키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났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뜨거운 동포애와 넓은 도량으로 대범한 조치들을 련속 취해주시여 경색국면에 처하였던 북남관계를 완화시키고 화해와 단합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년초부터 북남고위급회담이 진행되고 남조선에서 열린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선수단과 응원단은 물론 고위급대표단까지 파견되였다.

많은 나라들에서 실천적인 조치들로 첨예하였던 북남사이의 관계를 돌변시켜놓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찬탄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나왔다.

세계 각국의 신문, 통신, 방송들은 조선반도에서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 국가의 진정한 노력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남측에 파견되였던 고위급대표단을 만나주시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중국의 신화통신, 이란의 프레스TV방송, 싱가포르신문 《스트레이츠타임스》, 인도네시아신문 《자까르따포스트》, 인디아의 ANI통신과 NDTV방송, 지뉴스TV방송, 신문 《힌두스탄 타임스》, 영국의 BBC방송 등은 조선의 적대국가들이 최대의 압박과 제재에 대하여 떠들 때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남조선을 방문하고 돌아온 고위급대표단을 만나시여 화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더욱 승화시켜 훌륭한 결과들을 계속 쌓아나가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조선의 최고령도자께서 남조선에서 진행되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고위급대표단을 파견하신것자체가 그 성과적개최를 진심으로 바라는 표현이다고 전하였다.

세계 많은 나라의 전문가들은 조선의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순간에 정세를 변화시키시였다, 조선의 통일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주도하고계신다, 그이께서 계시기에 조선은 세계를 놀래우는 격동적인 사변을 반드시 안아올것이다고 이구동성으로 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확고한 의지에 의하여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 채택발표되였다. 그로부터 29일만에 북남관계의 새출발과 화해단합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평화의 상징으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였던 력사의 땅 판문점에서 또다시 북남수뇌상봉이 진행되였고 지난 9월에는 제5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새로운 리정표인 《9월평양공동선언》이 탄생하였다.

뜨거운 동포애를 지니신 절세의 위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탁월한 령도가 있기에 대결상태에 있던 북남관계에서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수 있었다.

세계는 이번에 조선민족이 얼마나 걸출한 절세의 위인을 모시고있는가를 다시한번 절감하였다.

우리 인민은 조선반도에서의 력사적변천과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다시금 확신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조선반도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대전성기가 반드시 펼쳐질것이다.

세계가 그에 대하여 공인하고 있다.

본사기자 리학남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주체조선의 70년력사

여러 나라 인사들 열렬히 격찬

람홍색공화국기를 창공높이 휘날리며 자기의 한생을 온 세상에 선포한 때로부터 70성상 사회주의한길로 줄기차게 전진하여온 주체조선의 강용한 기상은 국제사회에의 경탄과 놀라움을 자아내고있다.

여러 나라 인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보내여온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여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력사를 격찬하였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의의깊은 사변이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께서 공화국을 창건하심으로써 조선인민은 자주독립국가의 주인으로 되였다.

김일성주석각하와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조선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70년의 력사를 긍지높은 승리의 력사로 빛내이였다.

남아프리카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위원장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강력하고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국가로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강위력한 나라로 될수 있었다.

일심단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고한 기초로 되고있다.

벌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책임자는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난관들을 극복하며 승리만을 떨치면서 자주, 자립, 자위의 국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되였다고 격찬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적인 강국이라고 하면서 선군정치연구 네팔문학연단 위원장은 그 어떤 나라도 조선의 위력앞에 함부로 범접할수 없게 되였다, 이것은 김일성주석각하께서 와 김정일각하께서 창시하시고 발전풍부화시키신 주체사상의 자랑찬 결실이라고 칭송하였다.

이딸리아 밀라노주체사상연구센터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업을 계승해나가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이끌어오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오늘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로, 인류의 희망의 등대로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만리마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리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눈부신 성과들을 이룩해나갈것이다.

특출한 정치실력이 안아온 결실

벌가리아단체 블레찐 발행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판련하여 벌가리아조선친선협회가 블레찐을 발행하였다.

블레찐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올해에 들어와 조선반도에서는 세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이 이루어지고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향한 길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이 모든것은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담대한 결단과 특출한 정치실력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온 민족이 단합하여 부강한 통일국가를 일떠세우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시려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뜨거운 민족애와 흔들림없는 평화수호의지에 의하여 최근 상상도 못할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고있다.

블레찐은 평양에서 북남수뇌상봉이 진행된 소식과 회담에서 발표된 《9월평양공동선언》의 전문을 함께 실었다.

【조선중앙통신】

독도강탈흉심의 발로

최근 일본정부가 독도를 《자국령토》라고 주장하는 자료조사보고서라는것을 내각관방인터네트홈페지에 게시하였다.

독도강탈에 환장이 된 일본집권세력의 흉심의 발로이다.

올해 1월 일본은 도꾜도의 한복판에서 독도가 《제땅》이라고 우겨대는 령토주권전시관개관식을 벌려놓았다. 그후 외교청서, 방위백서와 같은 문건들에도 《독도령유권》을 주장하는 문구들을 계속 쪼아박았다. 그것도 성차지 않아 이번에는 내각관방인터네트홈페지에 황당하면서도 파렴치한 문구들을 올렸다.

일본의 독도강탈야망이 도를 넘고있다.

독도는 명실공히 우리 조선민족의 신성한 령토이다.

백두대산줄기를 근간으로 하여 호랑이자태를 이룬 북남삼천리강토의 유구한 력사속에 독도는 빼려야 뗄수 없는 살붙이로 기록되여있다. 일본에서도 독도가 명백히 조선땅이라는것을 고증하는 자료들과 력사지도들이 적지 않게 발굴, 공개되였다.

지난해에 울릉도옆에 독도가 그려진 대동여지도필사본이 일본에서 발견되였다. 대동여지도는 우리 나라의 지리학자 김정호가 1861년에 만든것이였다. 한 일본인이 간수하고있던 대동여지도필사본을 조사한데 의하면 울릉도 오른쪽에 한자로 《우산》이라고 적힌 작은 섬이 확인되였다.

또한 19세기 후반기에 독도를 일본령토로 간주하지 않는다는것을 확증한 일본검정교과서가 발견되였다. 1886년에 편찬된 지리교과서에 실린 아시아지도에 일본국경이 붉은색으로 그어져있는데 울릉도와 독도는 그려지지도 않았다.

다른 나라 전문가들도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는것을 보증하고있다.

로씨야의 아시아지리전문가인 알레리 글루쉬꼬브교수가 올해초에 《동해의 울릉도와 독도》라는 저서를 내고 1943년부터 1951년사이에 쏘련과 미국, 영국 등이 맺은 조약과 협정들에는 독도가 조선의 떨수 없는 일부라고 밝혀져있다고 피력하였다.

그런데도 일본반동들은 그 무슨 《불법점거》를 운운하며 독도가 《자국령토》라고 우겨대고있다. 남강도의 무지막지한 생떼라 하지 않을수 없다.

력사적진실과 국제적원칙도 모두 짓밟은 일본의 령토강탈소동은 탐욕과 파렴치성의 극치를 이루고있다.

일본은 《대동아공영권》을 부르짖으며 총칼로 세계의 정의와 량심을 짓밟아고 다른 나라와 민족을 침략, 략탈하던 제국시대처럼 남의 나라 령토를 강탈하려고 날뛰고있다. 일본반동들이 국제사회의 지탄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독도령유권》을 떠들고있는데는 마치도 우리 나라와 일본사이에 《령토분쟁문제》가 존재하는듯 한 인상을 조성하여 여러 나라들이 정세의 눈초리를 곤두세우고있는 저들의 범죄적인 재침책동을 합리화해보자는 너절한 흉심이 깔려있다.

일본의 령토강탈책동은 렬도전역에서 광신적으로 벌어지는 력사외곡행위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일본반동들의 력사외곡행위는 곧 령토팽창, 해외침략의 전주곡이다.

지난날 일제군부는 조선침략을 준비하면서 력사외곡을 전문으로 하는 어용사가들을 인입시켜 륙군참모본부에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였다는 얼토당토않은 사이비학설인 《임나일본부》설을 조작해냈다. 그 후예들이 력사외곡에 기초한 강도적인 침략력사를 되풀이하려 하고있다.

일본이 《독도령유권》을 가지겠다는것은 언제가도 실현될수 없는 망상이다.

우리 조선민족의 땅 독도는 신성불가침이다.

일본이 령토강탈책동에 광분할수록 친년숙적과 반드시 결산하려는 우리 민족의 대일적개심만 백배해질뿐이다.

자기를 망칠 어리석은 야망은 제때에 버리는것이 좋다.

리효진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

지금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은 동은 새로운 력사적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얼마전 평양에서 제5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9월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것은 북과 남이 주인이 되여 민족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려는 민족자주의 기상을 온 세상에 과시한 력사적사변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북남관계를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면서 평화와 번영,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자면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 밝혀진대로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이다.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고있는 우리 겨레가 민족자주의 기치를 들고나아가는것은 너무도 응당한것이다.

조국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외세에 의해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는 문제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한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70여년 동안이나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것보다 더 가슴아픈 비극은 없다.

조선의 분렬은 외세가 강요한것이다. 외세에 의하여 우리 조국이 둘로 갈라졌으며 외세의 방해책동때문에 오늘까지도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있다.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허용하면 오히려 복잡성만 조성되고 언제 가도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해결할수 없다.

온 겨레는 민족의 자주권을 귀중히 여기고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며 민족자주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해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간다는 자세와 립장을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조국통일위업은 누구도 대신해줄수 없으며 반드시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수행해야 할 민족자주위업이다.

민족적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에 대한 겨레의 기대와 열망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끼리 결정한다는 튼튼한 배짱을 지니고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올해에 북남관계에서 누구도 예측할수 없었던 극적인 순간들이 마련되고 좋은 합의들이 이룩됨으로써 오랜 세월 이그러졌던 비극적인 북남관계가 바로잡히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향한 훌륭한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의 채택이후 북남사이에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무접촉이 이루어지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에 이바지하는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다. 이러한 속에 북남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실천하며 화해와 통일의 대하가 더욱 세차게 흐르도록 하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이 담긴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되였다.

이 모든것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에 대한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북남공동의 성실한 노력이 안아온 결실이다.

적대와 대결에로 치달던 북남관계가 획기적으로 전환되고 놀라운 변화와 성과들이 이룩된것은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도 두렵지 않으며 북남관계개선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능히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북과 남이 함께 손잡고 마련한 오늘의 성과들을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평화의 궤도, 화해협력의 궤도에 확고히 들어선 북남관계를 계속 탈선없이 곧바로 이어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온 겨레가 민족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해결해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은 오늘도 래일도 민족자주의 길, 민족단합의 길이다.

민족자주의 정신은 민족을 강하게 만들지만 외세의존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망치는 길이다. 이것은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을 위한 험난한 투쟁속에서 우리 겨레가 찾은 진리이다.

북남관계개선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다. 북남관계문제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며 그것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선해나갈수 있는 힘과 지혜도 우리 민족자신에게 있다.

민족자주의 립장을 고수해나가는데 북남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수 있는 근본비결이 있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얼마전에 평양에서 또다시 감격적으로 이루어진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과정을 통하여 커다란 힘과 고무를 받아안고있으며 이 땅우에 펼쳐질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래일을 확신하고있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이 채택된 때로부터 불과 몇달만에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된것으로 하여 지금 온 겨레의 통일열기는 그 어느때보다 높아가고있다.

《9월평양공동선언》에는 하나의 강토에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려는 온 겨레의 절절한 념원과 자주적지향이 비껴있다.

북과 남이 주인이 되여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충실히 리행해나가려는 겨레의 앙양된 열의를 하나로 합쳐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으며 민족의 기상은 더욱 높이 떨쳐질것이다.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온 겨레가 한데 뭉쳐나가는 바로 여기에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성과적인 리행이 있으며 북남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 민족번영과 자주통일이 있다.

조국통일의 길은 의연히 복잡다단하지만 분렬과 대결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력사를 자기의 힘으로 새롭게 써나가려는 겨레의 강렬한 의지는 그 무엇으로도 꺾을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갈것이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라설하

《동부-2018》군사훈련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지난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로씨야의 동부군관구에서 중국인민해방군과 몽골무력의 참가하에 《동부-2018》군사훈련이 진행되였다. 이것은 1981년이래 처음으로 되는 대규모군사훈련이라고 한다.

훈련에는 로씨야의 동부군관구와 중부군관구의 군인들과 북함대, 태평양함대무력 그리고 항공륙전대와 군용수송항공대, 항공우주군 련합부대들이 참가하였다. 군인 30만명과 비행기, 직승기, 무인기 1 000대, 땅크와 장갑수송차를 비롯한 전투기술기재 3만 6 000대, 군함 및 보급함 80척이 여기에 동원되였다.

순항미싸일에 의한 지상목표소멸, 스텔스미싸일들의 공격격퇴와 함께 해군륙전대의 상륙, 전투기들의 공중전 등 각종 훈련들이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로씨야대통령 푸찐은 이번 훈련을 통하여 군지휘기관, 련합부대 및 부대들의 전투준비정도와 호상협동능력이 세부적으로, 전면적으로 검열되였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동부-2018》을 통해 로씨야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집요한 제재압박에 대응해나가는 한편 전략적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군사적조치들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고있다고 전하였다.

해를 두고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있는 미국 등 서방과의 모순과 대립속에서 나라의 전략적안전보장을 위해 로씨야가 힘을 넣는 분야는 다름아닌 군사분야이다.

올해에 들어와 그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지고있다.

우선 최신무장장비들을 개발배비하는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고있다.

신형핵동력미싸일과 소형핵동력발동기를 장착한 무인잠수기구 등 신형무기들을 련이어 공개하였다.

로씨야는 자국의 군사적잠재력을 두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이 지금도 가지고있지 못하고 앞으로도 수십년동안 카질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무기들을 보유하였다고 하면서 전지구적인 미싸일방위체제에 수천억US$의 자금을 쏟아부은 미국에 조소를 보내고있다.

다음으로 군종, 병종부대들의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과 규모의 군사훈련을 적극적으로 벌리고있다.

8월 한달만 보더라도 각종 군사훈련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로씨야의 서부, 남부, 중부군관구들에서 반테로훈련과 쌍방전술훈련, 지휘참모훈련이 있었다. 서부군관구에서 진행된 반테로훈련에는 약 3 000명의 군인들과 비행기, 직승기들을 비롯하여 300대이상의 군사기술기재가 동원되였다. 훈련과정에 군인들은 현대화된 기술기재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로씨야민족근위대와 비상사태성지휘부와의 협동작전능력을 련마하였다.

한편 지중해에서는 미싸일순양함 《마르샬 우스찌노브》호를 기함으로 하는 함선집단의 반잠방어훈련이 벌어졌다.

외신들이 《동부-2018》군사훈련을 평가하면서 중점을 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중국이 처음으로 여기에 참가한것이다. 이에 대하여 그들은 로씨야가 중국과 접촉하여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이라고 주장하였다.

로씨야나 중국은 다같이 미국의 제재를 받고있는 조건에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출로를 긴밀한 군사협력에서 찾고있다. 두 나라는 브릭스, 상해협조기구에 속한 성원국들로서 호상협력관계를 중시하고있다.

로씨야와 중국은 국제 및 지역열점문제들에서 의사소통을 강화하면서 공동보조를 취해나가고있다. 앞으로 전략적협조동반자관계를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 공동으로 노력할뿐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협조와 공영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관계를 수립하고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훌륭히 수호해나가야 한다는것이 현재 두 나라가 견지하고있는 립장이다.

로씨야는 중국, 몽골과 함께 《동부-2018》과 같은 대규모군사훈련을 진행한것을 통해 지역나라들과 군사적보조를 맞추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과 맞서나가려는 의지를 다시한번 보여주었다.

미국과의 대치상태가 날로 격화될수록 로씨야의 자위력강화와 지역적군사협조노력은 더욱 강화될것이라고 외신들은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박송영

습근평주석 강군건설문제에 언급

중국의 습근평주석이 9월 27일 한 집단군부대를 시찰하면서 강군건설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새시대 당의 강군사상을 심도있게 관철하고 새로운 형세하에서의 군사전략방침을 관철하며 법에 의한 군대관리 등을 견지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훈련과 싸움준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며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능력을 속히 높임으로써 당과 인민이 부여한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리행하여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날 그는 비행장지휘소에서 부대의 행동훈련을 보았다.

수리아 외국무력의 즉시적인 철수 요구

수리아외무 및 이주민상 왈리드 알 무알림이 9월 29일 유엔총회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정부의 동의없이 수리아령내에 들어와있는 외국무력의 즉시적이며 무조건적인 철수를 요구하였다.

그는 자기 나라 정부의 동의가 없이 외국무력이 수리아령내에 들어오는것은 비법이며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된다고 하면서 이것은 주권에 대한 침해로서 반테로노력을 저애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있다고 언명하였다.

따라서 수리아는 미국과 프랑스, 뛰르끼예를 비롯하여 수리아령토에서 활동하고있는 임의의 무력도 강점세력으로 간주하며 그에 대응할것이라고 그는 주장하였다.

지난 7년간의 전쟁후 수리아의 정세는 보다 안전하고 안정되였다고 밝히고 그는 수리아인민의 영웅주의와 결단성, 단결 그리고 동맹자들과 벗들의 지원에 의하여 반테로전은 거의 끝나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또한 정부가 주권과 독립, 령토완정을 수호하는것과 같은 국가적원칙들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것이라는데 대해 그는 강조하였다.

여러 나라에서 자연재해

태풍피해 확대

일본 오끼나와현을 통과한 태풍이 9월 30일 혼슈섬에 들이닥쳤다.

태풍으로 큰물과 산사태가 나 1일현재 2명이 목숨을 잃고 120여명이 부상당하였으며 행방불명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도꾜와 그 주변지역에서 45만세대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였으며 렬차와 비행기운행이 취소되였다.

큰물로 피해

니제르의 여러 지역에서 6월부터 내린 무더기비에 의한 큰물로 20만여명이 피해를 입었다.

9월 29일현재 사망자수는 42명으로 늘어나고 1만 6 000여간의 살림방이 파손되였다.

아가데스, 마라디, 진데르 등지에서 혹심한 피해가 초래되였다고 한다.

화산 분출

메히꼬에서 9월 29일 뽀뽀까떼뻬뜰화산이 분출하였다.

화산재가 수천m 높이까지 뿜어올라 메히꼬주와 그 주변지역 상공을 뒤덮었다.

【조선중앙통신】

전염병 만연

미국에서 최근 서부닐비루스가 만연되고있다.

미련방질병통제쎈터는 올해에 들어와 9월 18일현재까지 전국적인 감염자수가 1 077명에 달하였으며 3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특히 네브라스카와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주들에서 피해가 가장 크다고 한다.

얼마전에도 일리노이스주에서는 한 늙은이가 서부닐비루스에 감염되여 죽은것으로 확인되였다.

밀주행위로 인명피해

이란의 호르무즈간, 북부코라산, 알보르즈주들에서 최근 밀주행위로 인명피해가 났다.

9월 29일 이 나라 정부가 밝힌데 의하면 지난 이틀동안에 비법적으로 제조된 독성이 있는 술을 마시고 13명이 목숨을 잃고 60명이 병원으로 실려갔다.

엄청난 국가재무

프랑스에서 2.4분기에 국가재무액이 2조 2 900억€에 달하였다.

이것은 그 전분기보다 훨씬 많은 액수라고 한다.

9월 28일 이 나라 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ㄱ-1811571(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